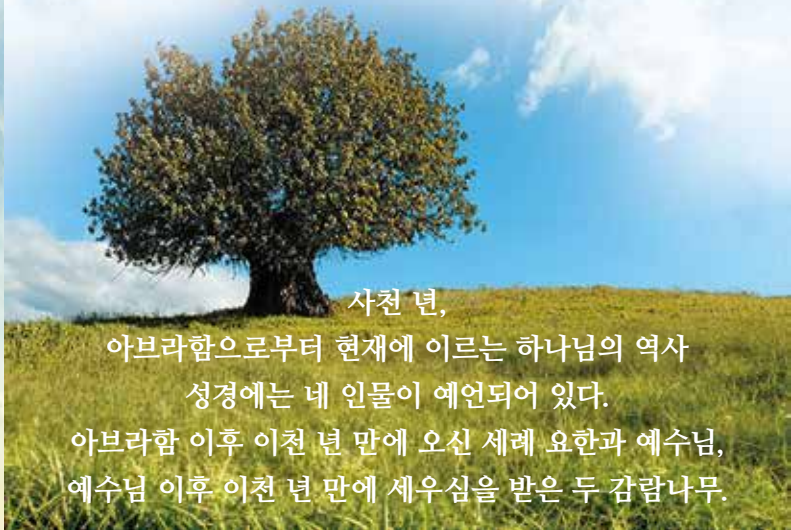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 에덴의 메아리 9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 에덴의 메아리

---

발행일 | 2012년 3월 22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http://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mailto: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39-7

ISBN 978-89-6449-223-9 (세트)

---

에덴의  
메아리 9



저자 (1994년 당시)



**스포츠타운.** 경춘 국도 변에 자리한 스포츠타운 내에는 실내수영장, 볼링장, 체육관, 사우나 시설 등이 있다. 체육 시설이 없던 곳에 스포츠타운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실내수영장.** 자체 정화 설비로 수질이 국내 최고임을 자부한다.

# Prologue

## “책머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일수록 큰 난관에 봉착하지만, 끝내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성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감람나무의 역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향과 모함과 핍박의 거센 바람을 헤치고 내일의 승리를 위해 싸워 나가고 있다. 이 설교집의 저자는 이 세기의 삭막한 광야에서 홀로 감람나무를 증거해 온 지 어언 20년, 그가 최근에 외친 설교를 엮어 여기 아홉 번째 설교집을 내놓게 되었다. 이어서 열 번째 설교집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일반 목회자들처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없다. 원고나 메모도 없이 단에 서면 말씀이 샘솟듯 쏟아져 나온다. 그는 자신을 주님의 마이크로 자처한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

게 된다. 그는 성경을 깊이 있게 쪼개고 종합하여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어 보지 못했던 새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준다. 그는 “죽어도 내가 한 말은 조만간 지상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인간 이영수는 매장될지 몰라도, 그 입을 통해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눈이 있는’ 독자라면 이 설교집에서 하나의 신학, 대우주의 근본 원리를 밝힌 새로운 신학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충격을 금치 못할 것이다.

오늘날 보수주의 신학은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포로가 되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은 철학을 앞세워 말씀에서 생명을 앗아 갔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던 깊은 내막도 모르고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날 교계는 겉으로는 팽창을 거듭하고 있지만 영적인 영양실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말씀의 황무지에서 온갖 비진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옥석이 뒤섞여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그레섬의 법칙’이 우리 교계에도 통용되는 기현상을 보게 된다.

‘에덴의 메아리’에 시리즈로 담긴 설교집들은 앞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1집에서 9집까지 한 그루의 무성한 과일나무를 연상케 한다. 거기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다.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 그리하여 그 열매는 우리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된다.

이 설교집은 지금까지 깊이 가려졌던 성서의 오의(奧義)와 진수를 환히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궁

금증을 후련하게 풀어 준다. 즉 이 설교집은 문자 그대로 성서의 영해(靈解)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요16:13) 주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메시지로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느 설교집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 설교집의 교정을 보아 주신 김윤성 목사님과 정환택 장로님, 장승렬 장로님 그리고 윤상학 선생에게 감사를 드린다.

1994년 3월 23일 최 현



# Prologue

## “재판에 즈음하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감람나무 역사에 가지로 부르심을 받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중에는 사단의 눈을 피해 짐짓 가려놓은 부분이 적지 않으나,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나중 감람나무의 입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진리의 말씀은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로 계속 발간되고 있으나, 주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처럼 깨닫지 못하여 이제야 재판이 나오게

되었다. 몇 군데 잔손질을 한 것은 이미 간행된 설교집 전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이다. 이 설교집의 재판을 위해 수고하신 윤상학 박사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최 현

# Prologue

##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레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 (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 (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 (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 (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셨다. (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려듣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책머리에 ... 06

재판을 즈음하여 ... 09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1

*Part 01.*

보혜사의 인도를 받아

01 인류 역사는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되었다 22

02 선악과와 생명과일 34

03 우리는 지상에서 나그네이다 40

04 주님의 역사와 이긴자의 역사 49

05 하나님의 섭리와 감람나무 시대 58

06 노아의 때와 이긴자의 때 69

07 하늘과 땅의 전쟁에 대하여 82

08 주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 90

## Part 02.

###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

- 09 회상 98
- 10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109
- 11 세상의 주관자를 똑바로 알라 125
- 12 생수가 증거하고 있다 139
- 13 하나님의 경륜과 십자가 군병 146

## Part 03.

### 말씀으로 무장하자

- 14 유한과 무한에 대하여 154
- 15 죽음은 하나의 시작이다 160
- 16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발전 165
- 17 하나님의 근황 178
- 18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자란? 187
- 19 알곡과 가짜 포도송이 197
- 20 하늘의 성전에 대하여 203
- 21 지성소와 음부 215

## Part 04.

### 섭리 안에 부름을 받고

- 22 영적 귀향에 대하여 228
- 23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241
- 24 하나님께 필요한 인간이 되라 249
- 25 새 신학의 정립을 위하여 258
- 26 전우애를 가지라 263
- 27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삼각관계 270
- 28 인간이란 무엇인가? 282
- 29 왜 하나님의 역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가? 289

*Part 01.*

# 보혜사의 인도를 받아



1. 인류 역사는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되었다 · 2. 선악과와 생명과일 · 3. 우리는 지상에서 나그네이다 · 4. 주님의 역사와 이긴자의 역사 · 5. 하나님의 섭리와 감람나무 시대 · 6. 노아의 때와 이긴자의 때 · 7. 하늘과 땅의 전쟁에 대하여 · 8. 주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

## Chapter 01.

# 인류 역사는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되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16:13-14)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 말씀과 연결된 영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가 있는 영들도 이 말씀에 따라 앞날에 닥칠 대접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영의 전쟁에 관한 윤곽을 드러낸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이런 영들의 움직임을 논한다는 것부터가 일반교회에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은 근래에 와서 하나님과 주님의 사정에 대해 조금씩 말

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이에 놓여 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일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이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계2:7)라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귀가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역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귀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어, 그 행적이 우리에게 교훈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종들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모세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 시대에 필요했던 종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시대에 필요했던 종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종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도 이런 시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십자가를 지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필요했던 종은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이었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종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나요? 하나님에게 인간이 필요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왜 인간이 필요한가요? 마귀와 대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인간을 짓는 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끝난다면, 제3의 존재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몹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겨냥하여 만들기 때문입니다. 적화통일을 하려고 말입니다. 그 핵폭탄은 우리를 죽이려는 무기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놓아둘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마귀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면 마귀 자신의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잠자코 있다가 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당시부터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3각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는 하나님 대 인간, 인간 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 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척척 다 이루어 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 편합니까? 그야말로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눅4:6) 이걸 기독교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미친놈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크게 가로막고 있다고 말입니다.



에덴동산에서는 아담, 하와가 먹고사는 생명과일이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니까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먹여 살리는 거지, 아담이나 하와 자신을 위해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 주인이 자기를 위해 소를 먹여 살리는 것이지, 소를 위해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아담,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나는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하고, 위에서 필요한 존재로 둔갑해 버립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위해 먹고살 수 있는 것이 생명과일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그 재료가 뭐냐? 선악과입니다.

에덴동산의 한복판(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다고 했습니다.(창3:3) 생명과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데 필요한 과일이라면, 선악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필요한 과일입니다. 이 과일이 에덴동산의 한복판에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호락호락한 겁니까? 그 세력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다른 과일은 먹되, 이 과일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하고 당부하셨다면 하나님께 걱정이 되는 세력이 이미 침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당부의 말씀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신 것입니다. 따먹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세력에게 경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마음대로 하십니까? 못하시니까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먹지 마라, 조심해라 하는 당부는 천사를 시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걱정스러우니까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시초입니다. 시초부터가 하나님께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만 제일이고, 주님만 제일이라고 생각하여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잘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큰 종일수록 불리합니다. 왜? 마귀가 볼 때 눈엣가시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죽일 놈입니다. 그런 종이려면 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순리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알아보시다. 주님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16:24)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눅17:33) “죽도록 충성하라.”(계2:10) 기독교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님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왜 멀쩡한 사람을 죽으라고 하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요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는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에게 순교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처지가 평탄한 겁니까?

세상 전쟁에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 비상수단을 동원합니다. 몇 사람의 특공대를 택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만일 지금이 이긴자의 시대가 아니라면,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목숨을 버려야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마포를 입으려면 순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은 이긴자의 시대라 ‘세마포를 입게 하는’(계19:8)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입기가 얼마나 유리합니까? 포클레인을 이용하면 100명이 할 일을 운전사 혼자서 다 해치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가 남의 눈에는 우습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으나 마귀는 대뜸 알아보았습니다.(마8:29)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어도 마귀는 자기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창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면, 그 창을 빼앗아야 합니다. 빼앗지 못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창을 빼앗기면 거꾸로 자기가 찢려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빼앗긴 자는 숫제 창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앞선 역사에서 은혜 받은 9만 명이 어둠을 상대하다가 도리어 어둠에게 점령당하니 거꾸로 어둠이 이들을 앞세워 쳐들어옵니다. 그리하여 9만 명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앞잡이로 변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담, 하와는 “하나님, 오셨습니까?” 이렇지 않았습니까. 몸을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과 절친하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칩니다.

“아담아, 네가 왜 숨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느냐?”

“네,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초지종을 들으신 후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가만있으면 괜찮습니다. 가만있지 않고 생명과일을 먹으러 에덴동산에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아담, 하와는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조종하던 마귀와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만 들어온다면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담, 하와를 조종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세력이 함께 들어오니까 화염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창3:24)

영의 싸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고마워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다가도 돌아서면 하루아침에 적이 됩니다. 왜? 빛을 꺾으려는 어둠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역사에 몸을 담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자에는 상실하는 기사가 실려 있고, 후자에는 회복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지면 만유를 회복했다고 말하게 됩니다.(행3:21)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 하와가 쫓겨났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나오면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취 먹게 한다.”(계2:7)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은 에덴동산에 있던 과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이걸 진리입니다. 이영수가 오늘 죽어도 내가 한 말은 지상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훌륭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이 있지만, 당시에 주님을 알아주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그 말씀은 세

계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들이 어찌고저찌고 해도, 내 말이 사실로 입증될 때에는 아니라고 막을 세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 이영수는 매장될지 몰라도, 이 입을 통해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가로막으면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6,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무엇 때문에 긴긴 세월을 당신의 아들에게까지 피 흘리기를 강요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비참하게 죽여 가면서 오늘날까지 질질 끌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일반교회에서 배운 차원에서, 안일하게 있어도 뭐가 되는 줄로 알고 이 역사를 따른다면, 100만, 1,000만으로 수가 늘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앞선 역사에서 시집, 장가 안 가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심어 나가는 체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은 성경을 상고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역사에 속히 적응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과 이 역사를 이끌어 주신 주님에게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는 발을 들여놓기도 어렵고, 따르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이 감람나무의 역사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자연히 부여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그 그늘에서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주님과 직결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자기편으로 보겠습니까? 적으로 봅니다.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뺏고 뺏기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수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저를 움직여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찰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이 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당이 굿할 때 자기 혼자 합니까? 그 신은 그 신대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보혜사 성령은 이긴자를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귀한 줄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이긴자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달랐습니까?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의 역사를 원리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흔들립니다. 세상에 매입니다. 세상 것이 됩니까? 다 썩을 것들이 아닙니

까? 신령한 것은 하늘에서 옵니다. 인간에게는 신령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 밥 세끼 먹고, 화장실 들락거리는 인간들에게는 잘나고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문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 여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왜 따릅니까? 다른 데 가면 언변 좋고, 인품이 뛰어난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굳이 저한테 욱먹어 가면서 오실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분들에게 없는 게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걸고, 행여나 해서 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 종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차원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삿5:23 참조) 이건 사이비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일반교회에서 하지 않는, 아니 하지 못하는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사이비다, 이단이다 하고 탓합니다.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 역사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심부름을 하는 인간일 뿐입니다. 저를 백 번 봐야 저한테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고, 제가 무슨 심부름을 하는가를 알 때, 이영수라는 인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아니고, 김 권사가 올라와 서거나, 이 집사가 올라와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따르기 힘들고, 또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더



라도 주의 종과 호흡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렘25:14)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움직인 만큼, 하나님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 Chapter 02.

# 선악과와 생명과일



기독교를 성령이 세우는 종교라고 한다면, 악령은 이것을 무너뜨리는 적대 세력입니다. 세상에서는 10년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는 측은 무너뜨리는 측에 비해 대단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근래에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깊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보면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권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영수의 말이라 하여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입각하여 말씀의 차원에

서 생각해야지, 어떤 개인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주님 당시에도 제사장의 말을 귀담아듣는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설교하니까 귀 밖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되풀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말씀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먼 옛날,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른 과일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 과일을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과일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반대로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창3:5) 이처럼 양측의 이야기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인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양상이 똑같습니다. 한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다른 한쪽에서는 으레 아니라고 훼방합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이 되고, 먹어도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악이 됩니다. 그럼 선과 악이 근원적으로 인간에게서 비롯됩니까? 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빛에 속하느냐, 어둠에 속하느냐에 따라 선악이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처지를 모르면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백성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질서를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도입니다. 그 율법을 지켰다고 죽을 영혼이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갈3:10)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 가지고 인간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2:21)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과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 과일과 먹지 않으면 죽는 과일이 있습니다. 전자는 선악과이고 후자는 생명과일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것과는 정반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생명과일을 먹으면 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생명과일을 이긴자에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계2:7) 이걸 성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죽고 산다는 것은 물론 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이 죽고 사는, 선과 악에 대해 다시 검토해 봅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은 악입니다. 그럼 반대로, 먹어야 산다는 것을 먹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6:48-53) 이때 먹지 않는 것은 악이 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을 때 죄가 되고, 먹으라는 주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을 때 죄가 되며, 이것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세상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총명이 있어 이 일을 깨닫겠느냐?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알리라.”(호14:9)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매장시켜도 내가 한 말이 진리라면 길이 남아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한 말이 진리였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이 따로 있으셔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맞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믿어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지상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축과 먹으라는 축의 중간에서 인간이 샌드위치가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력에게 지배를 받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이 지배를 어느 한쪽에서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견 해야 되고, 저견 해서는 안 된다는 제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귀가 소탕되어 하늘나라가 전개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유를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는 죽음 앞에서의 상대적인 자유입니다. 결국은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인간에게 무슨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시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계21:4) 거룩한 성안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거기 있는 건 빛뿐입니다. 그리고 빛 안에서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악의 세력인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높은 차원의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롬8:1)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도 그 뜻을 잘 모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것은 빛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견해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독약을 먹은 사람은 해독제를 먹어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된 인류가 다시 영생하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주의 살과 피, (요6:56) 곧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생수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핍박과 조롱을 무릅쓰고 이곳에 모이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 안찰을 받으면 선악과를 먹어 죽게 만든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고,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생수, 즉 빛의 세력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단시일에 무더기로 십자가의 군병을 배출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무기입니다. 그 역할을 이긴자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긴자는 중간에서 심부름만 합니다. 그래서 이긴자의 손길이나 입김을 통해 주의 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공을 보아야지, 심부름꾼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그 판단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갖은 시련 속에서 파란곡절을 겪으면서도 성경 구절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까? 제 실력 가지고는 어렵도 없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게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 Chapter 03.

# 우리는 지상에서 나그네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색다른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큰 은총이지만,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여러분도 힘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제가 이 단상에서 일반교회처럼 믿기 쉬운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도 납득이 빠를 텐데, 저는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1천만이 넘습니다. 제가 그들과 같은 신앙 운동을 펼쳐야 한다면, 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저보다 몇 배 훌륭한 분들이 교역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



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성서적인 원리에 의해 말씀을 듣고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자세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의 간증에 의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눅4:6)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와 나눈 대화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상고하는 모든 신자들은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 타당한 해석을 할진대 마땅히 수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들 자기 나름으로 믿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세주입니다. 창세 이후로 기독교의 최고 대표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했다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겁니까? 없으니까 주겠다고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기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됐든, 모세의 시대가 됐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 겁니까? 마귀가 다스린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하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요14: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면 주님 이전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양의 문’인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도 못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일점일획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이 60년이면 60년, 70년이면 70년 살다 죽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바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전에 성령으로 함께하신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못하셨다면, 누가 데리고 가는 겁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북한에서 온 실향민들은 명절 때가 되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가지 못합니다. 38선이라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척이 천리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비행기를 타고 열 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못 갑니다. 갈 수 없는 조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향에 가려면 이 조건을 부셔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생존 시에 능력으로 함께하셨는데도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한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에게서 듣던 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그만큼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역사하신 방법을 가지고 통할 수 있었다면, 그런 비참한 최후의 수단을 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최후의 수단을 쓰셨다면, 상대방과의 접전에서 하나님의 처지가 어떠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고하시고(사53:7) 그 각본대로 이뤄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든 일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귀를 처단하기 위해 아들까지 희생시키셨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지게 하셨습니다. “네가 힘든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네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는 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히5:8-10 참조) 이런 정도라면 문제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긴자가 나온다고 쉽사리 승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긴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도 주겠다고 했습니다.(계2:26) 이긴자가 하는 일이 쉽다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긴자가 간단한 일을 하는 존재라면 주님이 당신의 보좌를 내놓겠다고 하지 않습니다.(계3:21)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밝히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해야 할 일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십만 명 모아 놓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설교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상대가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긴자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월남 전쟁에 참전하면, 한국에서 군에 복무하는 기간보다 세 곱절로 쳐서 3년을 계산한답니다. 왜냐하면, 월남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이 따를 경우에는 대우가 그만큼 좋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조건 제시가 크면 클수록 그가 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약속 자체가 엄청난 것은 그만큼 할 일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칭찬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날아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조건을 이긴자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반교회 신자들은 너나없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과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르침이 시초부터 다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

분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주님을 필요로 하여 모이는 곳에서는 오늘날 마귀가 경계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람나무 시대의 특이한 양상입니다.

오늘날 일반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이 마당에, 저 같은 게 나와서 ‘지극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눅4:10) 상황 속에서 일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뭐냐? 저 자신이 하나님과 주님을 필요로 해서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기에 오늘날까지 움직여 온 것뿐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번민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주관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한테 지시하신 분에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한갓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에게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성경 말씀을 자상하게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오니 도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지시를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불러 주셨으니, 목숨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영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만 하면 번지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에 안 맞아 튀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날 따르려면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성서에 입각하여 해명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에는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운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관자가 따로 있다면, 이런 찬양은 그 주관자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양상입니다.

왜정 때 우리 나라를 일본이 지배하는 것을 초등학교생들은 모릅니다. 그런 초등학교생이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쳤다면, 그 영광은 일본 천황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일본 천황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알맹이는 모두 일본에서 거둬 갑니다. 그걸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애국자들은

다릅니다. 군대에 가서 충성하면 일본만 강대해지는 것을 아니까 징집을 요리조리 피합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세금을 잘 내도 일본만 잘살게 만듭니다. 전쟁 때에는 늦그릇까지 다 거둬 갑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잘되게 하는 걸로 아는 겁니다.

신앙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동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도, 여기 오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가 안팎으로 사면초가(四面楚歌)가 된 상황 속에서, 악의 세력이 총공세를 취하는 가운데 주의 피권세로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데서 잘되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하지만, 여기서 잘되면 자기에게 여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다른 데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질 않습니다. 정반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남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고통이 따르나,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게 정상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이겨 나가야 합니다. 딛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둠과는 추호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어둠의 장난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털끝만 큼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도 뒤에는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앉아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과 주님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움직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 Chapter 04.

# 주님의 역사와 이긴자의 역사

- 네 생물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



우리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쓰러진 감람나무를 다시 들고나온 마당에, 지난 20년 동안 모인 사람도 얼마 되지 않으니 더욱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모인 사람의 수에 의해 헤아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진리이고, 적게 모였다고 해서 비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 예수님이 고깃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바리새인을 수천 명 모아 놓고 설교하면 위대해 보이는데, 주님이 하시는 하늘나라의 이야기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만 주님의 주위에 모였기에, 사람들은 주님을 천한 것들의 친구라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우리 역사도 비슷합니다. 몇 명 안 되는 식구들을 모아 놓고 외쳐 대는 제 이야기를 일반교회의 훌륭한 목사들이 어디 콧방귀나

꿍니까? 그들에게는 웃기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성경에 비추어 이치에 맞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여 보좌에 앉게 되자, 네 생물이 주님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계5:8) 그 주님께서, 이긴자가 나오면 당신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계3:21) 이 보좌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이긴자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 교류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나타난 후에는 주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과 교류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긴자가 나타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그에게 맡겨서 역사합니다.(계2, 3장 참조) 그렇다면 이긴자는 누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권한을 맡기시면, 그 후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긴자에게 권한을 맡기시고, 이긴자가 움직일 때 하늘에서 주님이 진두지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알아보시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고 약속하신 대로 2천 년 가까이 십자가를 놓고 예배 보는 곳에는 두세 명만 모여도 함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를

초월하여 범세계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시켜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 비로소 감람나무라는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은혜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초창기에는 목사들만 해도 3천 명이나 모였다 — 김윤성 목사의 증언) 그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여 서 있는”(눅4:14) 감람나무 역사의 시초였습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은 일반교회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떼를 지어 빠져나가게 되니, 일반교회에서는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이단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이때에 일반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감람나무에게 와서 안찰을 받게 되면 크게 부딪쳐 거품을 물고 나자빠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감람나무의 그늘에서 믿는 예수가 함께하시지 않고 판 신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에는 미국에서 믿든, 일본에서 믿든, 한국에서 믿든, 그 밖에 어디서 믿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니까 주님과 연결됩니다. 이때 주님과 연결된 사람끼리 그 영이 부딪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관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빛이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권세를 이긴자에게 일단 맡기게 되면, 그 이긴자를 통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른 권세가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님을 부르는데도 영적으로 부딪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앞선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역사의 주인공은 은혜의 촛대가 옮겨졌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긴자를 통하여 움직이는 모든 권세는 물론 주의 것이지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로 악령과 싸우다가 깨졌습니다.

조선시대에 장군이 병사를 거느리고 왜병들과 싸워 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왕이 굴복하게 됩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이 지게 되니 히로히토 천황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이긴자에게 권한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졌습니다. 이때의 주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긴자의 역사는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이 어렵게 됐으니 나가 복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다급해지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얼마 지나니 주님을 증거하던 입술에서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없애려고 별별 수단을 다 강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영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생물’이 주님 곁에서 움직일 때에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신도들은 주님과 직결되지만, 주님의 권한을 이긴자에게 맡겨서, 단시일에 마무리 짓는 작업을 단행하기 위해 속전속결(速戰速決)을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는 네 생물이 이긴자의 곁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대를 이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로 끝납니다. “여호와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다.” (슥14:7-8)

저는 청량리 시절에 처음 이 말씀을 듣고나왔습니다. 서해로 흐르는 것은 앞선 역사이고, 동해로 흐르는 것은 우리 역사를 가리키며, 좋은 바깥지라도 생수의 역사는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 때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앞선 역사가 끝나는 것을 서해로 흐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불과 몇 사람 모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악의 세력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네 생물, 즉 천사장들이 방패가 되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긴자가 나타나면 천사에게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계3:5) 물론 이 네 생물이 움직이는 것은 이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을 배출시키는 주님의 권세가 이긴자에게 와 있으므로, 그 계 무너지면 주님이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런 위기에 처해 계실 때 주님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선

이고, 불리하게 하는 것은 악이 됩니다. 선악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진정한 의미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분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이긴자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요16:8)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자가 어떤 일이 주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일이 주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의 개념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크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뿐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잘못입니까? 먹지 말라는 과일을 아이가 먹었다고 해서 부모가 집에서 내쫓습니까? 그런데 아담, 하와가 먹은 과일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독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즘도 안찰을 하면 신앙을 지키면서 범죄한 사람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영이 들어온 사람은 크게 다릅니다. 주의 종이 안찰할 때 일반 죄를 지은 사람은 고통만 당하지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탄 신에게 씌운 것을 모르고 안찰을 받으면 그냥 뺏어버립니다. 영과 영이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이걸 뭘 뜻하느냐? 성령과 악령이 끊임없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속하면 선이 되고, 악령에게 속하면 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하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입으로 선이다, 선이다 하고 우겨도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도취된 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주의 종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예수를 믿는 가운데,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차츰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한다, 병이 낫는다, 생수가 어떻다, 시체가 변한다 — 이것은 마귀도 때때로 장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지 못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 마귀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여기저기서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기적도 행하고, 병도 낫습니다. 세상을 누가 주관합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이 잘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 고통이 많이 뒤따릅니다. 세상이 마귀의 것이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아니꼽게 여깁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 속에서 우리가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천 명의 교인을 모아 놓고, 겨우 몇 백명 이루어진 사람을 배출시켜 놓았습니다. 그나마 여건이 조금은 유리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 운동과 성경책이나 끼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아는 신앙 운동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설교를 듣게 되고,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네 생물이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생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나도 어둠의 세력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음녀에게 모든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계17:15) 앞선 역사를 눈으로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있던 곳에 지금 엉뚱한 걸 갖다 놓고 있습니다. 성경, 찬송가, 다 내동댕이쳐 버렸습니다. 아니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셨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셨지만, 이제는 설명을 듣고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54억 인구를 지배하는 악령의 표적이 바로 저입니다. 저 하나 꺾어 버리면 여기 세마포 입을 자들이 4백 명, 5백 명 있다 해도 하루아침에 다 먹혀 버립니다. 세마포 입을 후보자 4, 5백 명을 사로잡는 것보다 나 하나 꺾는 게 유리하다는 걸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꺾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계3:12)는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앞선 역사에는 이런 언약이 해당치 않습니다. 앞선 역사와 우리 역사는 다릅니다. 앞선 역사는 거두는 역사가 아니라 뿌리는 역사입니다. 이긴자에 대한 핵심적인 언약은 후자에게 해당됩니다. 두 감람나무가 이긴자의 역할을 하여 나중에 배턴을 받아서 일하는 자가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차이는



대단히 큼니다. 따르는 여러분이 영적인 차원에서 앞선 역사와 이 역사의 차이를 알려면 가르침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앞선 역사에서 19년 동안 전한 말씀의 차원과 20년 동안 제가 전한 말씀의 차원을 비교해 보면 영의 비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바울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못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후12:11)고 말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나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따르는 양떼가 적어 알아주지 않는 것뿐이지, 말씀이나 권능은 앞선 역사의 주인공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빠질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질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다지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 Chapter 05.

# 하나님의 섭리와 감람나무 시대



우리는 오늘날 성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는 섭리를 차근차근 깊이 깨달아, 종래의 신앙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시정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깊이 모를 때에는 별로 걱정하거나 고민할 것도 없지만, 그 내막을 상세히 알게 되면 결코 태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이상을 보고 고민하다가 기절하여 며칠을 앓아눕기도 했습니다.(단8:27)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서 신앙을 지킬 때에는 이런 일이 없지만,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이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문제로 고민하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하늘나라(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후12:2)고 간증했습니다. 즉 바울

은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의 종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기에 앞서, 깊은 시름과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앞선 역사는 기독교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엄청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신과 신의 관계를 깊이 알지 못하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역사가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났다고 운운해 봤자, 그것은 전 세계 기독교계를 놓고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거기만 뭐가 있다 떠들어 대는 것은 일반 교계에는 가소로운 일로 보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휴거라 해서, 몇 안 되는 신도들이 흰옷 입고 모여 앉아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하늘을 우러러볼 때, 많은 신도들은 그들을 가소롭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백만, 수천만이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는 것도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느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유지됩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입각하여 부흥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고 말씀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에 대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마7:22-23)고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믿는다는 말씀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 당시에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는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계7:14)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의해야 할 것은, 이긴자 감람나무 시대가 되면, 누가 됐든, 주께서 그에게 권능을 맡겨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눅4:14, 요16:7-8, 계2:26, 3:21 참조) 지금은 이긴자 감람나무 시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과 현실에 입각하여 감히 단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이 이긴자 감람나무 시대를 부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지만, 만일 오늘날 이 시대가 감람나무 시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실일진대, 문제는 대단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모르는 데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1,200만 기독교인이 나름대로 만족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주님이 과연 만족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전에는 안일한 신앙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설명을 듣고 성경을 상고하면서부터 내가 알고 있던 차원의 신앙관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그 많은 기독교 신자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나? 나나 그들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 마귀와 싸워도 어려운데, 어떤 특정한 역사만이 싸워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리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54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긴자 감람나무 시대의 인구 분포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의 가지로 따르는 양떼는 얼마나? 겨우 몇 천 명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소꿉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할 겁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곁에 나타난 육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엄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감람나무 시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지구상의 누가 어디서 예언된 감람나무로 등장하든 관계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시에 지상에 수천만이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시대를 따지자면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노아의 시대는 어떠냐? 지상의 인류가 홍수로 다 죽고, 노아의 식구 여덟 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에서 감람나무 시대라고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54억의 인구가 거의 다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람나무 시대가 아니냐? 감람나무 시대입니다. 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감람나무가 행한 권능과 하늘의 메시지를 보여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양떼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자칫하면 양떼들의 비위를 맞추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인간 인지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여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순응하여 요령을 부리게 됩니다. 불평과 핍박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컨대 모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알지 못하면 저절로 되는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은혜가 오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만사가 형통되는 줄로 알고 따랐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시집 장가 안 가고, 그 역사에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그들은 기뻐 날뛰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족해도 주님이 만족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만족스럽더라도 주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6)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들어서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한 교회에 모이는 신도의 수가 60만을 넘어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구름 떼처럼 모입니다.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만족을 느끼시느냐입니다. 한 교회에서 60만 명이 주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

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기독교인 1,200만을 주님이 흐뭇하게 여기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역사에 오신 분들 몇 천 명이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이 몇 천 명 때문에 주님이 만족하실 만한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종이 되고자 오늘날까지 일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일할 것입니다.

역대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에게 보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뜻을 몹시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천사에게 물어보았으나, 가르쳐 주지 않아 애를 태웠습니다.(단12:8-13)

다윗도 구원만큼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상 중에 지시 받고 고민하다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자기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시16:10) 그가 만일 이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아 능력도 행하고 권세도 손에 넣었으므로 의기양양해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로 간다.” 하고 큰 소리를 쳤을 텐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축복 속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 하고 개탄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치니 자기라는 존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솔로몬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내가 달려 갈 길을 마치고, 이제 의(義)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딤후4:7)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화려한 그 세계를 내다보면서 죽음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이 시대에 감람나무 역사가 얼마나 초라하고, 가로막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얼마 안 되는 그 그루터기에게 실오라기 같은 기대를 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에 동참하여 고생하는 것을 제3자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건가, 하고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암담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역사가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지상에서 만나 하나님의 성업에 동참하고 있지만, 한세상이 지나면 영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 가고 싶어서 겁니까? 다 신이 하는 일입니다. 감람나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정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변개합니까? 마음에 들면 다행이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면 가야지 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원주민이 사는 땅에 쳐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을 휘몰아 전쟁터로 내모니, 얼마나 시달립니까? 먹기를 제대로 합니까, 씻기를 제대로 합니까?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피투성이가 되어 싸워야 합니다. 찢리고 찢기고 죽어 갑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쳐들어가 땅을 점령하면 곧 피의 숙청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또 치고 —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부리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인간은 싫어도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힘들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대가(代價)가 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2:10) 부르신 분을 위해 희생해라, 그게 싫으면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마10:38)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요구를 잊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찾는 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시련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고, 불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기독교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잘됩니다. 가로막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의 움직임에 대해 어느 정도 배웠으므로 짐작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월남은 적화 통일을 이룬 나라입니다. 미국은 월남에 대해 막대한 인적, 물적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병하여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월맹을 도운 나라는 소련과 중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 진영이 졌습니다. 월남이 크기나 한 나라입니까? 미국이 볼 때 코딱지만 한 미개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에 많은 군대를 파견하여 피를 흘리고 막대한 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공산주의자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앞선 감람나무 역사에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시대를 연상할 정도로 은혜의 창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둠의 세력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어떠하셨을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다시 복귀하기 위해 저를 세우실 때에는 아무렇게나 세우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설명을 들은 주의 종이 덮어놓고 “네,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갖고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워낙 가로막는 세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로 하나하나 이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아래 이 끌어 가는 역사입니다. 누구나 이 역사에 한 발짝만 들여놓아도 하늘의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받으셨으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 Chapter 06.

# 노아의 때와 이긴자의 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는 앞선 역사에 동참했던 분들이 많아 잘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요원의 불길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배턴을 이어받은 우리들의 신앙 운동은 우선 말씀으로 체계를 세운 후에,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전 국민을 상대하여 부흥을 일으키는 신앙 운동 같으면 앞선 역사처럼 우선 은혜를 부어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서둘러야 하겠지만, 이 섭리 가운데 들어오면 누구나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완전히 하늘의 알곡이 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역사는 그것과 양상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알곡으로 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을 거쳐야 합니다. 그 시련과 연단을 이겨 나가면서 배우고 깨달아 다듬어진 사람의 수가 늘어서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를 이어 알곡을 거두는 이긴자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반교회의 신앙 운동은 교인이 많이 모여 북적거리면 그 교회가 부흥된 것으로 여기고, 또 남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왔던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 빈자리를 채우면 그 교회는 언제나 유지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감람나무의 역사는 것처럼 부흥을 시키는 데 주력하지 않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한 사람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그가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24:12)는 주님의 말씀에 적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즉흥적이거나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어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은 우선 자기 자신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도 투쟁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좀처럼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게 되고, 시험을 감당치 못해 쓰러지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기질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자기 자신

의 약점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이 약점 때문에 지게 됩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건강한 사람보다 몸이 약한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몸이 약해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몸을 돌보지 않아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강 보면 운동선수들이 오래 못 삽니다. 자기 체력을 믿고 방심하여 술도 고주탕태가 되도록 퍼마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군데가 크게 고장 나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 빌빌거리는 사람은 만사에 조심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는 끄떡없어. 나는 절대로 변치 않아.”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못 가고 일찍 떨어집니다. 장담을 하다가 어떤 허점이 생겨 마귀가 침투하면 이기지 못하고 금방 쓰러집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지 않고 남의 흥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는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남의 흠을 탓할 여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약점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롬5:20)고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체계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비쳐 보고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자세히 알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을 채워 나가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교회의 교인들에게 열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성은 대단히 좋은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곤고할 때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여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주장을 내세우기 쉽습니다. 그러고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이래라저래라 하고 간섭하고 계시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님에게 필요한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의 종이 날이 갈수록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될수록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마22:37)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이들에 비해 우리 역사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 놓고 소꿉장난처럼 꼼지락거리고 있는 어떤 특정한 곳에만 뭐가 된다고 하니, 우선 상식적으로 봐서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성서적으로 자세히 알게 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의 사정과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사정과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사정을 같다고 생각하여 움직인다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시대에는 이랬고, 사도 시대에는 이랬다고 하여, 그 당시의 일을 거울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주님의 사정이 주님이나 사도 시대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당시처럼 믿는다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의합치 아니하고 어떻게 한 길을 가리요.”(암3:3)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호흡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간과 같이하실 수 없고,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10억이 믿든, 50억이 믿든,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들과 호흡을 맞출 수 없고, 그들도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의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일부러 그러

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정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안타깝고, 인간은 인간대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실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상한 설명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인기가 땅에 떨어진 감람나무를 다시 들고나온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반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도 십자가 아래서 예배 보는 곳을 주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주님의 사정입니다. 하시지 않는 것과 하실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실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역사의 처음 단계부터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다 설명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하나님과 주님의 사정을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은 때가 되면 밝히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양떼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귀가 열렸을 때 설명하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누가 믿을 겁니까?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손에 잡히기를 합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깊은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마24: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이제부터 배를 만들어야겠다.”

“배는 왜요?”

“내가 지상의 인간들을 물로 멸망시켜야겠다. 그러나 너와 네 가족만은 살릴 터이다.”

이렇게 해서 노아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노아의 여덟 식구를 건지기 위한 배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할 일은 밖에 나가 “우리가 배를 만드니까 들어와서 멸망을 피하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 수백 명 끌어들여라!” 하고 지시하셨다면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노아가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여덟 식구와 짐승의 암수를 짝으로 넣을 방주를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노아에게 통고하시자, 노아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당시의 하나님의 사정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시에 노아가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노아가 하는 일을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노아가 100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노아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그때에 만일 노아의 여덟 식구 중에, 아들이 됐든 며느리가 됐든, “아버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구 위에 사람들이 수천만이 살고 있는데, 홍수가 얼마나 난다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듭니까?” 하고 반대한다면 배 만드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지장이 많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나 며느리가 배 안에 들어가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겠습니까? 배를 만들라는 데 휘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전에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떨어지자, 노아는 부지런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에는 모든 짐승을 쌍쌍이 실을 뿐만 아니라, 홍수가 나고 지면이 마르면 노아의 식구들이 배에서 나와 농사짓고 먹고 살 양식이나 모든 물자도 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가 내리면, 노아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싫든 하나님이 지시하신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은 이렇게 되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야 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행9:4) 하는 음성을 듣고, “주여 뉘시오니이까?”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일어나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네게 알릴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신자를 이상 중에 불러, 사울을 찾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 “주여, 그 사울이라는 자는 천하에 악질인데요. 주의 성도를 붙잡아 감옥에 넣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주님은 “내가 그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택했으니, 너는 이렇게 그에게 전하여라.” (행9:15) 이렇게 해서 그는 이방 사도로 맹활약을 하고, 그가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대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단상에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주시고, “너는 이러저러한 일을 해라.” 하시므로 “네!” 하고 그대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더러 잘한다 못한다, 죽일 놈 살릴 놈, 미친 놈 똑똑한 놈, 하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여 산꼭대기에 한두 달이나 한두 해가 아니고, 무려 수십 년을 묵묵히 배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미친 영감이라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들로서는 극히 당연합니다.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내막

을 들어서 겨우 납득이 가겠지만,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여 년 전,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당신이 지적하는 한적한 곳에 교회를 지으라고 지시하시고, 그 영적인 방주에 타는 사람만 당신에게로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남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미친 소리라고 매도하고도 남습니다. 산속에 조그마한 기도원은 짓지만, 이렇게 웅장한 교회를 지으니, ‘왜 하필이면…’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라도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하늘 군병의 수가 얼마이니 너는 수를 채우라.” 하고 지시하셨으면, 주의 종은 그 이상의 것이나 그 이하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만 염두에 두면 됩니다.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 이걸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발짝만 밖에 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데가담한 여덟 식구에 해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적으로 노아의 여덟 식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합쳐 그 영적인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노아의 식구가 8명이 아니고 80명이었다면, 100년 걸릴 일이 10년 정도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덟 식구는 노아에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훌륭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함, 셈, 야벳, 세 아들이 노아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떨어졌습니다.(창9:25-27)

오늘날 여러분이 노아의 여덟 식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때, 노아의 아들들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노아를 아무렇게나 대한 아들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한다면 이견 말이 안 됩니다. 오늘날 영적인 노아가 이끌어 가는 이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제일 가난하고, 우리가 제일 핍박을 받고, 우리가 제일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단체 중에서 모인 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여덟 식구가 모여서 제일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방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역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이유를 대고 말이 많으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은 언동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과 주님에게 때로는 송구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주님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마당에서 야기되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것은 그것을 모르면 2천 년 전의 주님만 알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것은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 당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난한 사람의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왕이건 부자건 그의 딱한 사정을 알지 못해 그의 집 앞을 그냥 지나간다면 이들과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꺾통을 든 거지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자기가 구걸하여 얻은 쌀을 나눠 줬다면 그 가난한 사람은 누가 고맙겠습니까? 대답은 들으나 마나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사정을 모르는, 잘 먹고 잘 입는 예수쟁이가 수천만이 모여도 달가워하시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때 그는 주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단계 높이 성장한 신앙 자세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 새로 나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체계를 배우면서 따라와야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자란 분들은 주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 전개하는 신앙 운동은 자기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義)를 구하라.”(마6:33)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설사 우리에게 힘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주님의 뜻에 호응해 나가야 합니다.

수년 전에 알곡성전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영적인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여 뛰었습니다. 그런데 뛰고 움직인



사람치고 손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이 와야만 축복이 아닙니다.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넘어간 것도 축복이고, 병들 사람이 병들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해 오면서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아기 같고 순진합니다. 자기 자랑 같지만, 여러분은 주의 종을 본받으십시오. 뭐라도 조금만 하면 목에 힘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주님이 높여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잘난 척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거룩하신 분 앞에서 새까만 죄인들이 잔체하니 말입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겸허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 Chapter 07.

# 하늘과 땅의 전쟁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시록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는 주를 따르는 양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놀라운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은 영적인 말씀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천 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해하기를 포기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 교회에서는 여간해서는 설교하지 않으려 하고, 설교해 봤자 현실과 거리가 먼 말씀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와 닿아야 이해가 가고 납득이 잘 될 터인데, 난해하고 생소하여 지루하게 느끼기 십상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

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12:3-6)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지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분은 창세 이후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하여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 마리아라 해서 성모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7:14)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 드린 계시록에는 해를 옷 입은 듯한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용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용은 마귀의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마귀, 예컨대 ‘짐승’이나 ‘음녀’는 그 부하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입니다.(시2:9) 그리고 예수님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리아가 낳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마리아가 아닌 어떤 여자가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럼 지금의 하나님의 아들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다면 장차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활동을 개시하면 마귀의 괴수도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여 삼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만국을 다스릴 때 자기는 그 지배를 받게 될 테니,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이 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권능으로 하늘로 데려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계12:5)

기독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이 태어나야 한다.”고 사도 요한에게 지시합니까? 주님이 현재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갖고 있다면 구태여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아들이 태어나게 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모든 것을 처리해 버리면 그만이지, 복잡하게 사도 요한을 이상 중에 불러 왜 이런 지시를 하시겠습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잉태할 여자(마리아)가 필요했고, 여기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으려면 해를 옷 입은 듯한 여자가 또 필요합니다.(계12:1) 그렇다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뭐고, 해를 옷 입은 듯한 여자가 낳은 아들은 뭘까요? 기독교의 신앙관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원과, 지

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차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이상 중에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끝 날이 오리라는 음성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 뜻을 물었더니, 천사가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고 지시했습니다.(단12:7-9) 그리고 주님도 지상에 계실 때, 세상 끝에 대해 제자들이 묻는 말에, 그날과 그때는 당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대답하셨습니다.(마24:36)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마24:15-16) 하시고 해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여자’라는 소리가 나오고 ‘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나 짐승도 아기를 밴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해산을 합니다. 그 기간에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용이 여자가 해산한 아기를 삼키려고 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늘로 데려가자, 용은 대신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해치려고 하므로 여자는 광야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여자는 이 피난처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계12:14) 이 여자가 해산하느라고 기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쓰시던 부하들이 기진맥진하여 도망가면, 하

나님 편에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는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이렇게 마귀가 자기 세계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기간이 1,260일이요, 마흔 두 달이요,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그럼 이때 마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이처럼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세력을 짓밟습니다.(계13:7) 하나님이 당신의 세력을 작전상 후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 편에서 마귀에게 반격을 가합니다. 이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1,260일 동안 양육시킨 병력,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십자가의 군병을 함께 내보냅니다.(계19:14) 이 마귀와의 대접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마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계13:8) 이들은 전쟁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음부에 갇혀 있다가(계20:5) 심판을 거쳐 구원받을 자는 건짐을 받고, 나머지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계20:13-14)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계12:7-9)

지금 이 세상의 많은 물위에 앉아, 물이 스며들 듯이 위로는 임금부터 아래로는 거지에 이르기까지 지배하고 있는 음녀가 1차로 지게 되면 짐승이 등장하고, 짐승이 지면 용이 등장하고, 용이 지

면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진멸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겪는 전쟁 상대는 음녀입니다. 음녀를 이기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짐승과 싸워야 합니다. 이 짐승과 싸우는 것이 목 베임을 당한 성도들이 해야 할 마지막 과제입니다. 용과의 싸움은 미가엘 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베일에 싸였던 얘기들입니다. 성경 구절을 100번 봐도 모릅니다. 감춰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쉽습니다.

앞에서 여자가 낳은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불러올렸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2천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같은 해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 곧 주님이 다시 오시게 하는 것을 해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려면 지상에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여야 하고, (눅20:43, 히10:13) 마귀가 발등상 되려면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이 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 적어도 이 정도의 병력이 있어야 마귀를 발등상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를 옷 입은 듯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여건을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를 알아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

님이 필요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신앙 운동과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신앙 운동은 지상에서 보기에는 비슷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후자는 섭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다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을 여자도 필요 없고, 따라서 아들을 낳는 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탄생(배출)시킬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상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땅에서 이뤄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용이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누가 가로막느냐? 용이 가로막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은 모두 비유입니다. 해를 옷 입은 듯한 여자가 주님이 다시 오실 여건을 마련하는 해산의 수고를 마치면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해산의 수고를 마친 직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을 피해 아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고, 여자가 광야



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이 피난처(광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그 도망간 여자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자와 그녀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 14만 4천을 가만두지 않고 짓밟아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배합니다. 그 군세는 지금의 음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광야에서 양육된 14만 4천은 주님과 함께 짐승을 상대해 이겨도 용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을 잡을 때는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 미가엘 천사장을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싸울 상대는 현재는 음녀지만, 앞으로는 짐승입니다. 짐승과 싸워 이기려면 이름이 어디에 녹명되어야 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어야 합니다.(계13:8) 그러므로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어 일정한 하늘 군병의 수가 차면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해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상에서 여건을 조성해 드려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해산’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주의 종에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늘 군병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권세로 마귀를 완전히 깨부수는 것입니다.

## Chapter 08.

# 주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도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죽게 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권세에 의해 구원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신도들이 바라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점에서 성서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깨닫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17:14)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사람은 너나없이 모두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이 넘는 기독교 신자들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영광의 주님이 되신 후에 주신 깊고도 오묘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잠시 천사만도 못한 존재로(히2:9)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과, 영광의 주님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은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하여 주님을 믿고 있으며, 영광 중에 하신 주님의 말씀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에 계실 때 하신 주님의 말씀도 귀중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그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하신 주님은 볼 수도 없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멧기세덱의 제사장이십니다.

지상에 계실 때의 주님과 천상에 계시는 주님은 그 모습부터가 판이합니다. 지상에 계실 때의 주님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으나”(사53:2) 천상의 주님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빛이 나고 있습니다.(계1:16) 그럼 주님의 어느 말씀이 더 위대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영광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걸림돌입니다.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계1:3)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를 가리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가 가깝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 멸망하는 때입니까? 마귀가 멸망하는 때입니다. 계시록의 단서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 계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승천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따르는 양떼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16:13)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

여 지상에서 열심히 믿는 신자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셨다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경륜이 다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계17:14)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짐승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악령이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하실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계 17:14)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보좌에 계신 지금의 주님을 공격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만 공격을 당하느냐? 아닙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계14:1)고 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14만 4천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14만 4천은 주님께 도전하는 세력과 싸워야 하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럼 그 군병은 어떤 자격자들인가? 성경에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계17:14)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어린 양과 더불어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상에 계셨던 주님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그 위상이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날까지 어떤 신학자도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적과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 말을 감히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흉내도 못 냅니다. 단

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요3:31)는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긴자 감람나무를 통하여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계1:7)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찌른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단독으로 싸우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수를 필요로 하시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하여 만드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인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려는(행3:21)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처참하게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역사에 동참하여 믿고 따르는 것은 주께서 불

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불러 주셨을까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영육 간에 혜택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빌1:20)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사명을 맡은 사람을 따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교회의 신도들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오늘날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뜻을 알았으니, 내 뜻에 필요한 존재를 만들어 달라.” 저는 20년 동안 이런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이 이 자격을 갖추는 때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5년 따르고 10년 따르는 동안 밖에 드러나지 않아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걸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려면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피차에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십자가의 군병을 만들어 놓기 위해 인내해야 할 것이고, 따르는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끌어 가는 사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따르는 여러분도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겁니다. 위치만 달랐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에 따라 주의 종과 여러분은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역사는 결코 제3자가 보듯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과소평가할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이 역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중차대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악령의 훼방도 심합니다. 그러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서 낙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눈 앞에는 이긴자가 있고, 이긴자의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Part 02.*

#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



9. 회상 · 10.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 11. 세상의 주관자를 똑바로  
알라 · 12. 생수가 증거하고 있다 · 13. 하나님의 경륜과 십자가 군병

## Chapter 09.

# 회상



금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으로 말하면 사회에서도 책임을 지는 나이인데, 우리 역사는 이 한 시대를 흘러가는 동안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어려움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는 단조롭게 느껴질 때도 많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도나 생각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이 나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이겨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기념예배를 통하여 성서적인 밑받침에 의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주님이 당면하고 계신 오늘의 입장을 다소나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사를 따르는 여러분들 중에는 연조가 긴

분도 계시고, 혹은 근래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입에 담기도 싫은 앞선 역사를 겪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야기만 듣고 전에 누가 감람나무 역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역사래 — 이런 정도로 아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만신창이가 된 역사를 또다시 들먹일 것 없지 않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으니 새로운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고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종교 운동을 펼치면 훨씬 이득이 되지 않느냐 —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마귀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기념예배 동안에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자세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역사를 이끌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배운 것도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단을 지키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조금씩 비취 왔을 뿐입니다. 한꺼번에 다 알리면 여러분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밖으로 조금만 나가도 교회가 많습니다. 또 산에는 기도원도 많습니다. 기도원은 몸이 아프거나, 하나님께 간구할 특별

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은혜 받기 위해 며칠씩 묵으면서 기도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깊은 산속에 따로 떨어져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뿐입니다. 그래서 당일에 예배를 보고 집으로 돌아 갑니다. 일반교회는 이처럼 먼 곳에 지으면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아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만 차비를 들여 버스를 몇 번 씩 갈아타고 전철도 바꿔 타는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셔서 그 지시에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반교회의 교인들은 우리가 이처럼 먼 산속에 교회를 지은 것을 와서 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산속에 교회를 지었나, 이 정도의 교회를 지을 재정이 확보된다면 시내에 교회를 지어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내왕할 수 있게 하지 않고 — 하고 의문을 갖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내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새로운 신학 사상은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주께서 영광 중에 사도 요한을 불러올려,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계시록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할 무렵의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저는, 앞선 역사에 전도사로 있다가 사회에 나

와 돈을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다시 말해서 연단과 시련을 겪으면서 지낼 때에 주님이 직접 이상 중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감람나무를 세웠다. 이 두 감람나무 중에 네가 따른 그 사람은 내가 먼저 기름을 부은 감람나무이다.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너에게 동시에 기름을 부었다. 너는 나를 몰랐지만 나는 너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네가 지금까지 자라온 지난 날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특이하게 대해 준 것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감람나무라는 것을 최초로 통고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전도사 시절에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더라면 목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차 내가 감람나무가 될 줄 알았다면, 전도사 노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사 시절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광경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 사흘돌이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굳게 봉하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때가 되기 전에 네가 입을 놀리면 네 신상에 좋지 않다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일체 내색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 가르침은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주시기도 했지만, 대개 천사들의 안내로 영화 장면처럼 펼쳐 보여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지적하신 성경 말씀을 펴 보면 성경에 비어 있는 곳이 보이고, 역대 선

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의 내용이 그곳에서 영화처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감춰진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은 하늘나라의 광경이 언제까지나 선명하게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라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잊힐 텐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뇌를 보여 주시고, “네 뇌를 조종하여, 하늘나라의 모든 광경들이 어제 일처럼 한 평생 네 머릿속에 담겨 있을 터이니,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따르는 양떼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오늘날까지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여러분을 이끌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기 위해 어떤 준비도 없이 단에 서면 마치 하늘나라에서 녹음테이프를 돌리시는 것처럼 입을 놀리기에 바빠지고 말씀이 내려와 순서가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즉흥적으로 쏟아 놓은 설교지만, 앞뒤가 맞지 않거나 논리가 비약되지 않고 거의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성령)의 조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뇌를 조종하시고, 입술을 도구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기계로 이 부족한 것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저 자신이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반교회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열성이 대단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난스럽게 여기서

만 차원 높은 주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이고 사이비가 돼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도대체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기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어긋나면 이단과 사이비로 몰려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0년 동안 설교한 내용에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앓은뱅이 거지가 구걸할 때,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자 그 거지는 일어나 걸었습니다.(행3:6)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이 말씀대로, 전에는 주님을 불렀을 때 구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서에 예언된 감람나무 시대가 오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이긴자 감람나무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역사하십니다.(속4:14, 계11:3-4)

저는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저에게 설명해주셨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토록 많은 교회가 있고, 그토록 많은 신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설명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오시기 전입니다. 제가 혼자 사회에서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돼서 밥벌이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에게 시키시려니 저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오신 것뿐입니다.

주님은 2천 년 가까이 각 민족과 족속을 상대하여 역사해 오시면서, 혹시 어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나올 수 있을까 주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되었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두 사람이 기름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의 출현을 무척이나 반가워하셨습니다. 주님은 첫째 감람나무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게 앞선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감람나무의 슬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은혜 받은 성도의 수가 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만 명이 유감스럽게도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감람나무가 둘이라고 증거하다가 나중에 하나라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첫째 감람나무와 둘째 감람나무를 쓰기로 각본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를 통째로 말아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차라리 감람나무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그 내막을 알려 주시고, “네가 최대한 노력하여 무너진 역사를 다시 일으켜 다오.”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다 차단했습니다. 일을 하려면 사람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을 이루는 역사는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한사코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9만 명의 성도를 자기 손아귀에 넣어 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최고로 어려운 여건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일찍이 이처럼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운 많은 교회 중에서 일곱 교회를 택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소원대로 나타나면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맡겨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단시일에 해 치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맡길 만한 이긴자 감람나무는 나타나지 않은 채 전 세계에 걸쳐 무수한 교회가 세워지면서 20세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당시의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게 됩니다.(속4:14) 그 대표자가 악령과 대적하여 패하였다면, 내용적으로는 기독교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뜻합니다. 이런 영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상 중에 보니, 앞선 종이 인도하는 성가대석을 어둠이 휩쓸더니, 나중에는 종까지도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어둠이 지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 바오로 병원 옆 건물 4층 꼭대기에, 제대로 믿지도 않는 교인이 30명가량 모였는데, 주님이 그 단상을 이상 중에 제게 보여 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빛이 내리비

치는 가운데, “보라, 네가 선 단이 거룩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많은 교회의 호화로운 단과 비교하여 제가 선 단은 누가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 섭리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뜻을 이 지상에서 이루기 위해 심부름을 하도록 택함을 받다 보니까 제가 서는 단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일반교회는 날이 갈수록 변성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크게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여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어렵더라도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나 고달픕니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할 판인데, 반대로 제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 성전 지은 것은 주님의 여건이 좋아지도록 제가 도와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눈물겹게 호소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신 할머니 한 분도 정중히 대하고, 어린이 한 명도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교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도 시간을 여기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 나갑니다.

지금까지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성령이 저와 같이 하시

기 때문에 저는 힘을 얻어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사기꾼, 사이비, 그 밖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바가지로 퍼붓지만, 주님은 제가 흔들릴까 봐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기에 앞서 주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주께 드리는 것 없이 밤낮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신가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누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앞선 역사가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오면서 고독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서러움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나 깨나 주님의 당부 이외에는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명심하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람나무 역사는 이제 짓밟힐 대로 짓밟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중이 될망정 이영수한테는 가지 마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와줘도 힘들 텐데, 그렇게 가로막고 갓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일해야 하는 이영수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오실 이가 당신입니

까?”(마11:3)라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멀리했는데, 하물며 같은 감람나무가 “그는 도깨비야. 그 놈에게 갈 바에는 중에게 가는 게 나아.” 이렇게까지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는데, 이걸 모르고 주의 종을 어찌고저찌고 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심령이 어렵니다, 그걸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처지입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세상 소망을 요만큼이라도 가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자나 깨나 양떼들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성령의 교류와 주님의 위안 속에서 그 사명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고 오늘날 하나님과 주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이 마귀를 어떻게 상대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전지전능하시니 무조건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쉽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 Chapter 10.

#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오늘날 이 시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2천 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영원한 복락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바르게 살고자 갖은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한 평생을 성서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희생하고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훌륭한 인격자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보혈의 은혜와 연결되어 당연히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감람나무 시대를 맞이하여 은혜의 촛대가 감람나무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촛대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삼상4:22, 호1:10, 마21:43)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맡은 당사자로서 그분들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역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를 이단이다, 사이비다 하고 비난합니다. 따르는 여러분 중에도 때로는 의심하여 자기 나름대로 주의 종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쩌다가 이 시대에 큰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오늘날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비난과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만 나가도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한 군데만 무엇이 된다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누구나 다 기도하면 자기에게 나름대로 은혜가 오고, 누구나 매달리면 체험이 있는데, 한 군데만 어찌고저찌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가’ —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도,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당부에 따라 여러분에게도 깊은 말씀을 자제하면서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시대를 그림 보듯이 예언했습니다.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라. 그 돌을 믿는 사람은 형통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다.”(사28:16) 돌은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와서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를 우습게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가리켜 하

나님을 모독한다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모태에서 나오지 않은 것만도 못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소위 민노라 하는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점도 바로 그런 시대와 비슷합니다. “40억 인구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목해서 불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나온 지 2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뿐입니다. 54억 대 여러분 — 믿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여덟 식구만 남겨 두고 지상에 살던 수천만을 홍수로 멸하시겠다는 지시를 내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므로(마24:37) 오늘날 일반교회의 목회자들은 이 성경 구절에 의해 주의 재림을 부르짖지만, 지상에서 노아와 같은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죄를 씻지 못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죄가 뭐냐, 하고 물으면 흔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즉 죄를 짓는 주체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마귀가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요일3:8) 바리새인을 가리켜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시고(요8:44) 가롯 유다를 마귀라고(요6:70)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인간이 독자적

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죽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게 하는 요소를 누가 인간에게 주었느냐 — 마귀가 주었습니다. 인간은 마귀가 갖고 있는 이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로 “나는 영생해!” —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썩어 가는 시체 앞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찬송하고, 주의 품에 안겼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살길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마귀가 지옥에 처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보면, 마귀가 죄인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죄인에게 형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뭇 때문에 자기편에 선 죄인에게 벌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상을 줘야 마땅합니다. 또한 지옥은 마귀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황을 베풀어 구원시켜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공황히 여겨 얼마든지 건져 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고난 받으신 대가로 구원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 왜 하필이면 독생자에게 최고의 극형을 내리셔야 하는가? 아무도 2천 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니다.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 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고맙게 여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죽어야 해. 네가 죽지 않으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 이것입니다. 그럼 대관절 하나님의 뜻이 뭔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마26:39) 주님은 “제가 죽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신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너무나 괴로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당시에 대한 예언의 시구를 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히2:9) 곧 인간의 위치로 내려와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한줌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

을 구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그토록 처참하게 죽여야 하는지를 2천 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저를 따르는 여러분의 신앙도 아직 얕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스스로 감당치 못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 이해가 가는 것 같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제가 전한 말씀에 부딪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보수적인 고정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사53:5, 시22:16, 속12:10) 그래서 주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즉흥적인 일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앉는(시 110:4) 이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물론 마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만일 관원들이 알았던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고전2:8)

그럼 하나님은 왜 독생자로 하여금 그토록 지기 싫어하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속이 뭐니까? 건져 내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야, 밧줄을 잡아라. 내가 건져 줄게.” 하고 던져 줍니다. 이럴 때 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걱정 마세요. 내가 수술해서 고쳐 줄

게!” 하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속시키기 위해, 즉 죽음에서 건져 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빼낸다는 겁니다. 그럼 인류가 멸망 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범죄하여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내는 것이 구속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직접 빼앗습니까? 주님이 피를 흘려야 비로소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인류를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고!” 하고 한탄하셨습니다.(창6:7)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인간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는 네 식구를 통해 나를 괴롭히지 않는 인류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나를 괴롭히는 8천 만보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 8명이 낫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인간이 어떻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

입니다. 그 마귀가 인간을 빼앗아 인간이 마귀의 편에 서게 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나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본인은 말할지라도, 실제로 마귀와 짝짜꿍이 되어 있으면, 그의 일생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낙인찍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괴롭히는 자의 손아귀에서 인간을 그냥 빼앗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빼앗는 방법을 여러 차례 동원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식구 이외의 인류를 멸하신 것도 그 방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당신을 괴롭히는 족속이 아니라, 찬양하는 족속을 만들어 보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노아 이후에 퍼진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 받지 않기 위해 탑을 쌓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귀 곁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으면 마귀 편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게 됩니다. 이 도전을 유도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 까막눈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세워 당신의 백성을 배출시켜 집중적으

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전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선지자, 사사, 왕들을 통하여 역사해 오셨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전하는 악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력이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괴롭히므로 하나님은 에덴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빼앗긴 인류를 다시 빼앗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신 끝에 끝내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까지 동원하게 되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최후의 수단이 실패하는 날에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짐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전2:7)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빚을 얻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기 마누라를 팔거나 자기 자식을 희생시켜 사업을 일으켰다고 칩시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는 우주를 지으실 때 동참했던 아들입니다.(창1:26) 그 가장 귀한 아들을 극형에 처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여건이 유리한 겁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기독교가 알기나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나만 증거합니까? 2천 년 동안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에 대해 상상도 못했잖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냥 인류를 구속하시면 되는 거지, 왜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아들에게 기어코 지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을 세워(고전2:7) 아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썩어질 인간들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시고, 우습지 않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모든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님을 감히 논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처한 오늘의 실상을 알려 드리려는 것뿐입니다. 알아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겠기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영체인 마귀의 도전을 받게 되면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듣는 사람의 수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지지해도 거짓일 수 있고, 한 사람이 말해도 그 말이 성경에 비추어 원리상으로는 이론적으로 옳으면 진리가 됩니다. 세상 목회자는 교인이 있어야 알아줍니다. 그러나 기름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좋은 교인이 있건 없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시키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인간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는데 아

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시다가 아들까지 희생시키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시키는 것이 간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인간을 건져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리면 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주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테반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피해 도망치게 하시지 않고 맞아 죽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영화 ‘퀴바디스’에도 나오니다마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일찍이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요21:18)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도중에 주님이 나타나니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네 대신 지러 로마로 간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대원군 시대에 신부들이 천주교를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하여 목 베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미워서 그렇게 방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답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위시하여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이겁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마귀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왜 주님을 의심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앞으로 왕이 되면 출세할 줄 알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끌려가면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바보 천치처럼 귀싸대기를 치면 귀싸대기를 맞고, 가시관을 씌우면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시고 —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저래, 뭔가 잘못 알았구나, 저렇게 무력할 수가 있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무력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걸 당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승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인간이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모세 때에는 능력만 나타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구 죽였습니다. 땅이 갈라져 죽이고, 불이 내려와 죽이고, 역병을 일으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마귀만 이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시대에는 전술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 “아버지여, 엘리야 때처럼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소서.” 하고 기도하여 그들을 모조리 불태워 죽여 버렸다면, 주님은 살아나 의기양양하게 능력을 과시할 수 있지만, 이걸 성공이 아니라 실



패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앞선 역사에 부름을 받은 9만 명의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마귀의 손에 다 빼앗겼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이걸 저더러 무기를 줄 테니 하나하나 빼앗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하는 일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종인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합니다.” 하고 전도하는 일반교회의 목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받은 것들이 나를 모독해. 다 내게 원수가 됐어.” 앞선 역사가 겉으로 멀쩡할 때, 주님은 앞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개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하고만 교류할 때에는 마음대로 하십니다. 즉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귀가 끼어들어 3각 관계를 이루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쏠리면 그만큼 하나님이 불리해지고, 하나님께 쏠리면 그만큼 마귀에게 불리해집니다. 이 관계는 마치 저울과 같습니다. 저울은 한쪽이 조금만 더 무거워도 그리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대결할 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돕느냐, 마귀를 돕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인간이 마귀를 도우면 하나님께 크게 불리해지고,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도우면 마귀에게 크게 불리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과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돕

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입니다.

이런 사명을 띤 사람과 일반교회에서 복음이나 전하는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 내기 위해서는 당신의 독생자도 찢어 죽이는 기막힌 일도 감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처지에 놓여 계신지 알 수 없겠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코너에 몰려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큰 괴로움을 겪고 계신 하나님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12:10)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쫓겨났지만 멸망한 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밤낮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로막는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앞선 역사가 무너져 나갈 때 하나님과 주님이 얼마나 당황하신 줄 아십니까? 저에게 그 내막을 가르쳐 주시고도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보혈을 흠모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혈의 은혜가 전달되지 못한다면, 피를 흘리신 주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

씀은 결코 듣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럴 수가!’ 하고 한편 놀라기도 하고, 의아하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의 일을 해 보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탄식도 하고 애통도 해 봤습니다. 감람나무 역사가 너무나 초라합니다. 따르는 사람도 계산이 맞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어려움에 시달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참아라. 견뎌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만일 주님의 이런 위로와 격려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시간에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선 역사에서 나를 없애 버리려고 했을 때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는 한마디도 비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감당치 못하면 주의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하여 내게 도전하던 세력이 주님을 향해 도전하게 됩니다.[\(삿5:23 참조\)](#) 그러므로 나는 이 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주님에게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예배 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주님에게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경, 똑같은 찬송으로 주님을 부른다면 당연히 다 함께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는 까닭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도 눈을 뜨면 혼자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못합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것은 있는데, 현실은 너무 어렵고, 나이는 어언

50이 넘었는데, 어떡하나, 이 시대는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데 어쩌면 좋은가! 그래서 저는 고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따르는 위치에서,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이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다림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기어코 유종의 미를 거뒀야 합니다. “세상에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인자를 만나서 실족하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니라.”(눅 17:1)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에 모처럼 발을 들여놓았다가 진리를 깊이 몰라 순간적으로 오판하여 떨어지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 Chapter 11.

# 세상의 주관자를 똑바로 알라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까닭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귀가 열려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기 전에는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밟아도 풀이 밟히는 것처럼, 찢려도 호박이 찢리는 것처럼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려운 역사가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에는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9-10)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바보 천치처럼 참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아 십자가에 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제가 감람나무의 역사를 하는 동안에 “네가 감람나무라면 왜 너를 해코지해도 아무 반응이 없느냐? 그러니 너는 엉터리다.” 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시94:1, 롬12:19)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뭘니까? 인간이 마귀의 편에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갚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마4:1)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의 신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주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

님은 주님이 아들이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 주시는데 왜 믿지 못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육을 입고 오신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품안에 있을 때에나 권한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존재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5) 그러니 누가 주님을 알아줍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는 능력자가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고 마귀가 주관합니다.(눅4:6 참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은 불청객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짝 긴장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10:18)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을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엡2:2)가 알고 주님을 향해 번개같이 따라 내려온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을 보시는 고로 잘 아십니다. 것처럼 마귀가 주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아들을 어둠이 주관하는 세계에 보내신 하나님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불담으로 지켜 주시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스스로 견딜 만한 힘을 길러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7)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즉시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지만 당신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즉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일단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40주야를 먹고 마시지 않고도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로 이부자리를 갖고 가지지 않았습니까. 맨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류하신 기간이 끝나니, 마귀가 직접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야!”

“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을 게 아니냐? 너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어. 그러니 네 앞에서 내가 떡을 만들 이유가 없어.”

“그래? 그럼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 봐. 너는 하나님이 지켜 주실 테니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과 네가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내게 보여 다오.”



“너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나 나는 그런 것에 속지 않아.”

“그래?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어. 나는 내 아버지 용에게서 이 온 천하를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 너는 내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는 불청객이지만, 만일 네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절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줄게. 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주마.”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이 외치시니,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주님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주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 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 (눅4:6)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서? 마귀의 왕초인 용한테서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천하만국이 자기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마귀에게 “아니야! 이놈아,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것이지, 어디 너의 것이냐?” 하고 반박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실제로 마귀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단지 “사단아 물러가라!” 고만 외치셨습니다. 주님이 천하만국을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교회에서는 이 세상 천하만국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주관하지 못하십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 주관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롬9:15) 그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

히 여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에게 은혜의 다림줄이 연결된 자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손을 못 대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만사형통하시는 줄 알고 있는 보수적인 재래의 신학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찢찢매기는커녕, 큰 소리 탕탕 칩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주인공이므로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네가 뭘데 남의 세상에 와서 꺾죽거리. 너 내게 절해.” 이렇게 도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네 이놈 사단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권세가 더 큼니까, 마귀의 권세가 더 큼니까? 마귀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난 2천 년 동안 마귀는 제쳐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따르는 백성들 사이에 오고 간 것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절하라는 정도의 위세라면 “여보십시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디 절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런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야, 무릎 꿇고 절해!” 하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셨는데, 감람나무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야 소중한 존재이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귀한 존재지만, 마귀의 눈에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계11:7) 이 죽음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동안(한 때, 두 때, 반 때) 그 세력이 꺾이는 것을 뜻합니다. 영의 세계에서야 일이므로 육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고 했으며,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계17:1-2) 그리고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계17:15)고 했습니다. 음녀의 권세가 왕들까지도 다 사로잡는 판국인데, 백성을 사로잡는 것은 속된 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다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앉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음녀의 지배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상고들까지도 사로잡습니다. 상고란 요새 말로 재벌을 가리킵니다.

이 음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그 지배권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권세자가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본인이 힘쓰고 애써서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무소부재 하여 당신의 백성을 일일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지상의 움직임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에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성의 부패한 거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네. 그러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 번 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살펴보셨습니다.(창18:21) 살펴보시니까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야,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안 되겠다. 없애 버려.”

천사가 물었습니다.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여야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은 씨를 말려 버려.”

“그러시다면 지상의 종 아브라함에게 통고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할 일은 내 종에게 먼저 알려 줘야지. 네가 알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없앤다고 통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의 통고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조카 롯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소돔 성에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죽게 생겼군요.”

“아, 참 그렇군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 성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조카를 살려 놓고 나서 소돔 성을 없애라.”

그래서 천사들이 부랴부랴 소돔 성에 나타나 롯을 성 밖으로 끌어내었는데, 그의 아내는 전에 살던 보금자리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창19:26)

오늘날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운운하고, ‘나를 통해 어찌고’ 하면 대뜸 이단과 사이비로 몰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당시에 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하고, 너로 번성케 하여 왕이 네 자손 중에서 태어나게 하겠다. 그 언약을 양피를 잘라 피로 맺자. 그러면 나는 양피를 벤 사람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창17:5-11)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노아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대로 믿어도, 이영수와 언약을 맺은 것은 믿지 않습니

다. 나 같은 건 존재가 없습니다. 두들겨 패면 맞아야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 위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오늘날까지 종들을 세워 안타깝게도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하면서 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순교자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끼던 독생자도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인간을 하나하나 빼내려면 엄청난 희생과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계시록에 하나님과 마귀의 진영에서 두 여자가 대표로 등장합니다. 해를 옷 입은 듯한 여자와 물위에 앉은 여자(음녀)가 그것입니다.(계12:1, 17:15) 이 두 여자는 서로 상극입니다. 큰 음녀는 마귀 왕초에게서 권세를 받아 ‘많은 물’, 즉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다시 말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해를 옷 입은 듯한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움직입니다. 이 두 거두가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은 감람나무를 내세워 음녀의 손에서 사람을 빼앗아 내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으로서 인을 치셨습니다. 그 수가 9만입니다. 이 9만 명은 주님의 정예 부대로 싸울 수 있는 하늘 군병의 후보자였습니다. 마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9만 명을 어둠의 세력에게 다시 빼앗겼습니다. 우두머리가 항복하여 주님이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가 다시 어둠에 빠지게 되면, 전의 그 상태가 아니라, 7배나 강한 세력으로 도전하게 됩니다.(마12:45)

이제 앞선 역사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순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역사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만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장난을 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똑똑한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목이 곧고, 여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기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보혜사 성령의 권능으로 음녀의 지배권에 들어 있는 인간을 하나하나 빼앗는 것입니다. 그 빼는 방법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계2:26, 3:21 참조) 그래서 하나님 이 “이 시대에는 너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녀의 손에서 빼앗아 올 자가 달리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서 듣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믿겠습니까?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기에 딱 알맞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상고해 보십시오. 거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음녀에게서 빼내어 하늘 군병의 일정한 수를 채우면 음녀의 세력은 꺾이고, 용이 나타나 여자를 핍박하므로(계12:13) 여자는 광야에 도망가서 한 때, 두 때, 반 때, 즉 42개월, 1,260일 동안 전력을 강화하고, 용은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 싸우게

합니다.(계13:2) 영의 전쟁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역사에 들어오시지 않았더라면 자기 판에는 아무리 잘 믿어도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감람나무 시대에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원수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음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가 안 됩니다.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이마귀를 작살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덮어놓고 작살낼 수 있습니까? 내막을 알아야 작살낼 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사정과 여건이 이렇고, 네가 할 일은 이렇다.” 하고 성경에 입각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따르는 수가 얼마 안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지시하는 한적한 곳에 성전을 짓고 내게 영광을 돌려라. 내가 영광을 받아야 능력이 나가고, 그것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가자. 이영수가 감람나무다.” —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10년 따르다가도 자기 계산이 맞지 않으면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야 여기서 믿어도 되고, 저기서 믿어도 되는 거야. 굳이 누굴 통할 것 없이 직접 믿으면 되잖아.” —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날 봐도 지지고 부는 일만 생기고, 이해하기 힘든 소리만 하고, 그래서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적을 모르면 제대로 싸울 수 없어 패배하기가 십상입니다. 6.25 때 미군이 토굴 속에 숨어 있는 빨치산과 싸우는데, 총을 들고 뺨뺨이 서서 쳐들어갔다가 적이 그냥 따르르 들이갈기는 바람에 많은 희생자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허여멀거니 하니 얼마나 잘 보입니까? 적을 모르고 싸우니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그 짝입니다. 뭐가 지배하는 지도 모르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 이걸로 승부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천만 명, 1억이 모이면 뭐 합니까? 물위에 앉은 음녀는 깔깔대며 웃는 것입니다. 음녀가 “옳다. 이것 받아라.” 하고 주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합니다. 왜? 모르니까. 주님은 저에게 이런 내막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하늘 군병의 수를 채워라.” 하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해라.” 하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뒤에서 이모저모로 참견하십니다. 영음으로 혹은 계시로 그때그때 지시를 내리십니다. 심지어 성전 종각 하나 세우는 것까지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마귀 편에서는 어떠냐? 저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크게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공작을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하나님이 불담으로

지켜 주시므로 건드리지 못하고, 그 슬하에 있는 자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틈만 있으면 침투하며,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여 일단 주의 종과 사이를 떼어 놓습니다. 그래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뺏고 뺏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이 역사를 따라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결코 자진해서 자기 발로 걸어온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 이끌려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일곱 눈으로(계5:6)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인간 이영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에 보조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저도 따라가고 여러분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잘돼야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잘돼야 제가 잘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과 저 사이에 금이 가게 되면 제일 좋아할 자는 마귀(음녀)뿐입니다.

## Chapter 12.

# 생수가 증거하고 있다



오늘날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인격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덕을 쌓아 남에게 본이 되고,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음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남들의 추앙을 받고 있지만,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죄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존경을 받고 다른 쪽은 지탄을 받는 차이는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마귀(음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계17:15)

주님은 이 음녀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를 필요로 하여,(계14:4) 이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계 열방에 걸쳐 개별적으로 역사하

여 음녀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 즉 순교자를 배출시켜 오셨으나, 그 역사가 비능률적이어서 당신의 피권세로 순교하지 않고도 단시일에 그 반열에 속할 수 있는 자를 많이 배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나빠서, 주님을 가까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애쓰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음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로, 죽으면 시체가 새까맣게 썩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분들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면서 깨끗하게 살았으나, 안타깝게도 음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썩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사를 만나지 않았던들, 누가 이런 내막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주님에게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지상에서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기사와 이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히2:7)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신 것이지,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오른 영광의 주님의 처지에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세계의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 시대는,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아 떼시고(계5:7)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

해 온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세력을 꺾는 것이 당면한 지상 과제가 됩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역사가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실례를 우리는 죽은 자의 시체를 통해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소설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한평생 예수를 진실하게 믿은 신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신부의 깊은 신앙과 고귀한 인품을 추모하여 그의 영전에 모여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체에서 하도 악취가 지독하게 풍겨 코를 막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프랑스의 의사, 점술가. 1503-1566)라는 자가 1999년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예언하여, 그가 죽었을 때 시체가 썩어서 관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흐물흐물해졌다고 합니다. 대예언자로서 수백 년 앞을 내다보는 그도 죽어서 시체가 흐물흐물해졌다면, 그 속에 들어가 그를 지배하는 영이 어떤 영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체가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인군자로 못사람에게 추앙을 받더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만 뛰어나면 목에 힘을 주고 으스대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 회칠한 무덤들입니다. 깨끗한 것 같아도 그 무덤 속에는 썩은 송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체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가식입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흠과 티가 없는 사람도 음녀의 지배를 받아 썩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음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지만, 음녀를 이길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음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종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 곧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 등장합니다.(눅4:6) 이런 종이 등장할 때에 비로소 마귀가 새까맣게 더럽혀도 천사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도(눅3:3) 순식간에 깨끗이 씻어 정한 옷으로 갈아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네 앞에 세운 돌을 보아라.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혔으니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눅3:5)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정한 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짝 앉아 있는 광경이 나타나 있습니다.(눅3:8)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 준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정결하고 깨끗해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엄격한 율법주의자로 율법으로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더럽히는 것을 천

사가 막지 못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기 잘못으로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게 된 게 아닙니다. 마귀가 더럽히니까 어쩔 수 없이 숯덩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더럽힌 옷을 순식간에 깨끗이 씻어 갈아입히고 머리에 정한 관을 씌우는 시대가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힐 때입니다.(눅3:9)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예언을 알려 주시면서, “내가 젊은 종 스가랴에게 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씌어갑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여, 저는 주님을 위해 목사 일을 몇 년 했습니다. 장로 일을 몇 해 했습니다. 권사 일을 몇 해 했습니다. 불우 이웃 돕기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주여 접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여, 저를 모르시다니요? 제가 무릎이 닳도록 매달리면서 주님을 찾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요.”(마7:22)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자를 끌어내라.”

그는 어둠 속에서 쫓겨나 너무도 분하고 원통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마8:12) 주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당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더럽혀 놓은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더럽혀진 옷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가?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종의 손길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눅4:6)

여러분이 처음에 주의 종에게서 안찰을 받을 때 눈이 뒤통수로 빠지는 것 같고, 속이 울렁거리고, 내장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은 죄가 녹아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과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의 세력이 부딪쳐 일종의 영적인 스파크(충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죄와 유전죄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생기는 것은 스스로 짓게 되는 자범죄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으면 어제 이 역사에 몸을 담았더라도 순교자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갑니다.

한평생 예수 믿고 금식 철야하면서 기도생활을 한 사람도 죽으면 썩어 가는데,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 역사 안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일곱 눈’(눅4:10)의 역사입니다.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계5:6)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나,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10만, 50만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살펴보십시오. 죄를 소멸시키기는



커녕, 내용조차 아는 사람이 있나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건지, 까맣게 모릅니다. 2천 년 동안 감추었던 일들입니다. 여기는 죄를 씻어, 주와 함께 ‘짐승’과 싸울 수 있는 자를 배출시키는 역사입니다.

일반교회에서는 병이 나왔다 하면 금세 수천 명이 모여듭니다. 병이 나오면 뭐 합니까? 또 병들어 죽는 걸,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면 뭐 합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고 주님처럼 부활했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일시적으로 산 것입니다. 몇 해 더 살다가 또 죽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이적입니까? 임시변통에 불과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마10:28) 그런데 세상은 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만 중요시합니다.

앞선 역사에서는 죄를 몹시 쳤습니다. 죄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눈길로나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는 내게 맡기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재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종이 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재료가 없다면 벌벌 떨면서 “그러면 죽어!” 하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마귀(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인간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죄를 씻어 주마!” 하고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 Chapter 13.

# 하나님의 경륜과 십자가 군병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19:4)**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가서 24장로의 반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24장로는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서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12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해 주겠다.” **(마19:28)**고 약속하셨으므로 24장로가 앉을 보좌 중에서 12보좌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후에 이방 사도로 활약한 바울의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12지파가 주축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었는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우두머리의 보좌가 돌아간다면, 구약 시대에 등장한 기라성 같은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모

두 사도들의 밑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게 된 당시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보좌에 앉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24장로의 보좌에 앉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만 남아 있다.”(딤후4:7-8)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큰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 자체가 새로운 시작인 동시에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24장로 중에서 나머지 열한 장로에 누가 속하느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계시록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 치는 천사가 나타납니다.(계7:1-2) 그 천사가 인을 다 칠 때까지 다른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그 인 맞은 자들의 수가 모두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는 인 치는 이 수를 채우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 산에 어린 양, 즉 주님과 함께 이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며, 이들 밖에는 보좌와 네 생물과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계14:3) 이 ‘새 노래’는 주의 보혈의 은총을 찬양하는 노래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

이라.”(출15:1)는 옛 노래와 대조가 됩니다.

이 14만 4천에 속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를 택하여 앉게 하는 것이 24장로의 보좌입니다. 비유해 말하면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마귀와 싸울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을 12개 조로 나누고, 그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24장로입니다. 이들을 장로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부터 장로가 주축이 되어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요지부동의 수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정하신 것입니다. 24장로는 이 14만 4천을 치리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능히 싸워서 이길 만한 자격을 갖춘 자는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됩니다. 그 나머지는 짐승에게 모두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계13:8) 짐승의 위력이 그만큼 막강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여 서 있는”(속4:14)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사명을 맡아 움직이게 되므로, 감람나무가 매장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모든 지배권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보다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늘 군병이 짐승과 싸워 이기면 마귀는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내놓아야 합니다. 마귀의 왕초인 용이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계13:2)

영의 세계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지상에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것만 알고 있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계시록은 거의 다 전쟁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 즉 주님도 앞으로 전쟁에 참가하십니다.(계17:14) 또한 여자가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아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계12:5) 이때 용은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므로 그 아들을 하늘에서 데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을 대표하는 존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신형 무기일수록 유리합니다.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가 전 세계의 큰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이 북한 대표와 회담을 벌여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국력이 막상막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은 국력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과 당당히 1 대 1로 겨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기가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종류가 다릅니다. 만일에 북한의 핵폭탄이 서울 시청 앞에 떨어진다면, 이 알곡성전까지 여파가 미쳐 전부 재가 돼 버립니다. 오늘 의 신예 핵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미국 원자폭탄의 몇 100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죽은 사람이 10여 만 명이고 다친 사람은 80여

만 명이지만, 지금은 그 200배 내지 300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회담할 때, 흐루시초프가 소련은 지구를 열여덟 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자, 드골은 프랑스에는 지구를 한 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을 뿐이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한 번 지구를 파괴하면 끝장이지, 그 이상의 핵무기가 뭐 필요하냐 하는 것 입니다.

또 흐루시초프가 중국의 모택동과 회담할 때 흐루시초프는 모택동에게 우리나라의 신예 무기 한 방이면 당신의 나라는 죽 쪼갬다고 말하자, 모택동은 당신네 나라의 인구는 2억이고 우리나라의 인구는 8억이므로, 소련 사람 한 명 죽을 때 중국 사람이 두 명 죽어도 소련은 잿더미가 될망정 중국에는 아직 4억이 남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흐루시초프는 껄껄 웃었습니다. 곰처럼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웃을 만도 합니다. 핵무기 앞에서 인구의 수가 많다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한 방이면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구 운운하는 것은 재래식 전쟁 때의 얘기입니다. 신예 무기일수록 전쟁에 유리합니다. 속전속결로 판가름을 내고, 질질 끌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둠이 주관하고 있습니다.(렘6:12, 계17:15) 하나님은 이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기 위해 6,000년 동안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세계 각국을 상대하여 만유의 회복에(행3:21) 필요한 하늘 군병, 즉 순교자를 배출

시켜 왔으나, **(계6:11)**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으나, 마귀를 상대해서 싸울 만한 군병은 가뭄에 콩 나기입니다. 마귀를 상대하여 싸우지 못할 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지상에서 순교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늘 군병의 수를 단시일에 배출시켜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마귀를 상대하여 싸울 수 있는 군병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올라가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펴 보시고 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14만 4천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란 수는 계시록에만 나와 있습니다. 역대의 어느 선지자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이 14만 4천을 단시일에 채우려면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계5:6)** 뿔은 싸우는데 필요한 권세를 뜻합니다. 일곱 눈은 어린 양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 돌과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일곱 눈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속3:9)**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준다고 했습니다. **(계2:17)** 그 흰 돌 위에는 일곱 눈이 박혀 있습니다. 눈 자체는 하나님의 영, 땅에 보낸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혀 있는 시

대입입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죄악을 순식간에 제해 버립니다.(속3:9)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서 안찰을 받으면,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금식 철야해도 되지 않던 여러분의 죄가 3, 4초 동안에 소멸됩니다.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는 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만나 그런 역사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Part 03.

# 말씀으로 무장하자



14. 유한과 무한에 대하여 · 15. 죽음은 하나의 시작이다 · 16.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발전 · 17. 하나님의 근황 · 18.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자란? · 19. 알곡과 가짜 포도송이 · 20. 하늘의 성전에 대하여 · 21. 지성소와 음부

## Chapter 14.

# 유한과 무한에 대하여



여러분, 영이란 무엇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입니다. 이 영이 상상을 초월한 먼 곳에서 와서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과 은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인간의 머리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여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머나먼 거리에서 0.1초도 못 되어 우리에게 도달하여 육체 속에서 약동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성령의 영향력이, 살아 있을 때와 죽었을 때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먼 옛날 선지자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먼 거리에서 그들의 육체를 통해 성령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셨으나, 그들이 죽었을 때에는 그 영혼

을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실정을 제가 최초로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16)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은 인간이 살아 있을 때에 임하지만, 죽은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1천 년 동안 잠근다고 했습니다.(계 20:1-3) 여기서 우리는 천 년이라는 시간관념에 대해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 년이라는 시간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밤과 낮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루라는 시간관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지구처럼 자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 년 동안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둔다고 했습니다.(계20:2) 무저갱이란 문자 그대로 끝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를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정한 공간이 아니라,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포위한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영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다는 알

수 없더라도, 오늘날 감람나무 시대를 맞아 나름대로 그 근황이  
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  
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요11:11) 바울도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변한다고 말했습니다.(고전15:51) 인간은 자다가 깨어  
나는 것처럼, 죽었다가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죽는 것은 육  
이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영의 세계로 갑니다.

주의 종이 A라는 사람에게 안찰을 할 때 나를 통해 그에게 하  
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나와 육적으로는 헤  
어지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연결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14:16)라는 주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도 함께하고, 죽은 후에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라.”(요11:26)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만 성령이 함께하고 죽은 후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세세토록 함께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구약 시  
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다스리던 성령의 역사는 한시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종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육적으로 다스렸는데,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종을 주관하지 못하고 다른 신이 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세세토록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귀의 권한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을 그 마귀의 권한에서 벗어나게 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계1:18)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런 열쇠를 갖고 계셨다면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6:53)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생수로 시체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한다, 안찰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 이면의 내용들을 알고 보면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생수가 뭘니까? 육적으로 표현하면 주의 피가 담긴 신령한 물입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의 조화로 되는 것입니다.(요7:39) 그래서 나를 감옥에 가둬 놓아도 생수는 계속 여러분에게 공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정한 날짜와 시간에 각자 집에서 물을 떠 놓고, 내가 감방에서 축복하면 그 물이 생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물을 뺏뺏이 굳어 있는 시체에 바르면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아무 준비도 없이 단상에 섰다 하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느 목회자의 입에서도 들어 보지 못했던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육을 갖고 현실에 부대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슴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영의 문제를 깊이 알고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

다. 하나님의 신과 연결될 때 귀중성이 있는 거지, 살다가 관속에 들어가 뚜껑을 닫으면 그만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놈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을 이끌어 왔지만, 여러분의 눈에 제 손을 대는데, 어떻게 위에서 성령이 와서 저를 통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눅4:10 참고) 생수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하여 남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온 세상의 주를 모신’(눅4:14)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람나무가 되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애쓰고 갈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 하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뒤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교만하게 목에 힘줄 까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종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고, 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어떻게 쓰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처럼 엄청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도 이전에 없었지만, 우리 역사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외면 받는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좁은 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운 등용문

을 거쳐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엄병덤병 살아가는 양떼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냉철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 Chapter 15.

# 죽음은 하나의 시작이다



우주에는 무수한 별의 집단인 은하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새 은하계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단12:4)는 다니엘의 말대로, 오늘날 과학이 크게 발달하여 달나라에도 오가고 천체를 새로 찾아내기도 합니다. ‘허블 망원경’이라 하여 지구 밖에 갖고 가서 촬영하여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 안에서는 공기 때문에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구 밖에서 촬영하면 원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육체를 갖고, 공기가 있는 이 지구라는 이름의 천체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기가 있는 데서 적응하여 살아가는 생명체가 인간이라면, 공기가 없는 데서 적응하여 살아가는 생명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을 다른 곳으로 끌어올린다면 그 영혼은 공



기가 없는 세계에서 사는 생명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6천 년 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각이 어느 정도 발달한 인간과 공식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 것이 6천 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성서에 기록된 에덴동산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몇 만 년 전의 유적도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불과 6천 년 전의 유적을 찾지 못할 오늘의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덴동산이 과연 지구상에 있었느냐, 아니면 지구가 아닌 다른 어떤 장소에 있었느냐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살아가야 하므로 여러 가지 옷을 입습니다. 춘하추동 사철이 있는 곳에는 사철 옷이 필요합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영생할 수 있었으나, 지상으로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겨난 후 사는 곳이 지구라면, 영생할 수 있는 아담, 하와가 살던 세계(에덴동산)는 지구였겠습니까? 다른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상에서 에덴동산을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가령 오늘 이 시간에 A라는 사람이 은혜 받고 조금 전에 죽었다고 칩시다. 그는 변화가 있는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없어지고, 다

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다면,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어떤 독특한 변화가 이루어져, 비유컨대 보석도 흔한 조약돌에 불과한 호화찬란한 다른 세계(계21:81-21 참조)에 적응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탈바꿈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곳이 제일인 줄 착각하고 살지만, 막상 변화를 일으켜 호화찬란한 세계에 가서 지상의 세계를 내려다본다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세계에서 살았는가를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므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신을 가까이하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우리 역사 안에서 누가 세상을 떠나면, ‘이 사람은 새로운 생명체로서 또 다른 세계를 맞이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기 싫다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홀연히 변하게 됩니다.(고전15:51) 이 변화는 우리에게 닥칠 요지부동의 사실인데, 지상에서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서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또 다른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훌륭한

생명체를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을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그 신을 전달해 주는 위치에서 20년을 살아오면서, ‘인간이 뭐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신과 신 사이에서 대단히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때로는 앞으로 펼쳐질 영의 세계를 내다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꺾데기만 어느 정도 알고, 믿으면 천당에 가려니 하고 생각할 뿐, 천당이 뭔지, 어디 있는지 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되려니’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아서 해야 하는 종이 되다 보니, 신의 내막에 대해 많이 보고 들어서, ‘그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선과 악의 갈등은 인류가 지니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과 인간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어떻게 대결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신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슥4:6)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땅재주를 부려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루에 밥 세끼 먹고 신과 신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접어들지 않으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행히 그 은총 가운데서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 Chapter 16.

#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발전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걸쳐 양적으로 크게 발전해 왔으며, 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자선도 베풀어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감람나무니 이긴자니 하고 외쳐 대는 우리 역사는 그 말부터가 귀에 거슬립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어 하는 의욕보다 거부감을 먼저 주어, 말 같지 않은 소리다, 듣기 싫다는 선입견이 꼭 박혀 버립니다. 이것은 일찍이 앞선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한 술 더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 의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편을 만들

려고 싸운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앞으로도 당분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분간은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마귀의 세력은 종내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계20:10) 그러나 그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와 원수 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해코지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 뭘 압니까? 마귀는 신이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마귀를 눈으로 보기를 했습니까? 마귀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싫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싫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싫어하게 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태초부터 이렇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무조건 선으로 인정하시고, 마귀에게 유리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악으로 단정하십니다. 선과 악은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인간이,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해서 선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차원은 다릅니다.

한편 마귀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을 악으로 여깁니다. 누가 죽어서

음부에 끌려갔을 경우에, 그가 생전에 하나님을 70프로 위하고 마귀를 30프로 위했다면, 마귀는 그에게, “너는 세상에서 내가 대적하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70프로나 하고, 내가 하라는 일은 30프로밖에 하지 않았어.” 하고 그 30프로는 칭찬하겠지만, 70프로는 꽤 씹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선과 악의 근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신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 어떤 사람을 선하다, 혹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는 자기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인간이 선을 행하려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와서 그걸 먹으라고 꾀었습니다. “먹으면 하나님이 보는 걸 너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죄는 이렇게 해서 정해집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눈은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필요한 눈이겠습니까? 필요치 않은 눈입니다. 왜? 그만큼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순수성이 뭐니까? 요컨대 하나만 알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 순수성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고 많이 주워들어 많이 알게 되면 생각이 복잡하여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잘 믿지 않고 의심만 갖게 됩니다. 즉 이유가 많아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도 그 밝아진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걱정합니까?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 가만있지 않습니다. 도전해 들어옵니다. 즉 어둠의 세력이 아담, 하와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 적을 막아야 합니다. 성서는 이것을 가리켜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창 3:24)

이와 같이 인간은 중간에서 하나님의 편도 될 수 있고, 마귀의 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언제나 끌려다니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신의 역학 관계를 알게 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할 아무 건더기가 없습니다. 잘난 체해 봤자 자기 생애가 지나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지상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도 죽으면 똑같습니다. 잘나고 못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속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문제는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명성을 날리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땡땡거리고 —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그 흔적이 남을 뿐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것은 이들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세력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아담, 하와에게 침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 짓기 전의 아담, 하와처럼 다시 하나님만 알게 하려는 작업을 하려



면 그 도전하는 세력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물리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때 인간 속에는 두 세력이 인간을 놓고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쩔 수 없이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나는 지배받지 않는다.’ — 이걸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요3:16-19)

여기서 빛과 어둠의 차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마11:13)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 때까지 선으로 인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부터였습니

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깨닫고 믿는 자는 선으로 인정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악으로 간주하여 정죄하셨습니다. 빛보다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불철주야로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남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골 청년이 떡 나타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요14:6)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대뜸 그를 향해 참람된 말을 지껄이는 천하의 죽일 놈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때 “그게 아니다.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믿고 따른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를 때에는 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해서 악으로 간주하여 정죄합니다. 그렇다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남에게 못된 짓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정죄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멀쩡한 사람을 정죄하시는가? 아무 잘못도 없

는 사람도, 왜 죄가 있다고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빛보다 어둠 쪽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빛의 지배를 받지 않고 빛의 반대인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 경건하게 살아간 것은 좋은데, 그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된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3:18)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인간들에게 이미 심판이 끝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 목회자들이 읽고도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에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시행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도 당시에는 존재 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널리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므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선과 악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판agram 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요16:8)고 말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

령이 왔을 때에는 양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체계를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진자 감람나무 시대의 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이고, 여기에 역행하는 모든 것이 악이 됩니다. 오늘의 선과 악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고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선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는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인군자라도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악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은 무조건 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무조건 선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은 민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백성에게는 라합이 역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공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만일 라합이 자기 민족을 위했다면 그녀는 애국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벌을 내리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성인군자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강도나 살인범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선으로 간주하십니다.

옛날 예수님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존경받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마23:27) 인간적으로 볼 때, 성직자와 강도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알아보는 강도를 선으로 여기시고, 당신을 몰라보는 성직자를 저주의 자식으로 치셨습니다. 이때 선악은 주님을 기준으로 갈라집니다.

일반 신앙 운동이라면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부흥이 얼마나 잘 됩니까? 조금만 기적을 행하고, 조금만 능력이 있다 싶으면 구름 떼처럼 모여듭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듣는 진리의 말씀을 기독교의 훌륭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서 듣는다면 귀가 토끼 귀처럼 쫓긋 올라갈 것입니다. 일찍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귀가 나발만 해 가지고 예사로 들어 넘기지만, 그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말을 몇 마디 가지고 설교해도 교회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말 한마디도 못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당신의 섭리를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 후에, 여러분이 합심하여 이 역사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기를 하늘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재료를 주의 종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뚝의 세력은 이를 한사코 가로막습니다. 자기에겐 치명적인 타격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로막지 않고 내버려 두는 데서 예수를 믿는 방법과 눈만 뜨면 가로막는 데서 예수를 믿는 방법이 같겠습니까? 같아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하면 모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십억의 인간을 손아귀에 넣고 있는 마귀가 수천 명 잡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걸 잡히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없습니다. 전하고 이루는 건 제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저에게 지시만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잘 들어라, 잘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주님 당시는 쉬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을 뱉고 귀싸대기를 후려했습니다.(막14:65) 주님은 묵묵히 이런 박해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 말대로요.”

이 말 한마디밖에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수십 만, 수백만이 모여도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 혼자서 이걸 뒤집는 얘기를 하자니 사람 환장할 노릇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할례를 받았는데, 그걸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례폐지론’을 들고나왔으니, 비난의 화살이 빗발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껏 몇 사람 설득해 놓으면 감옥에 잡아 가둡니다. 그 사이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주장이 틀렸다고 속삭이면, 일리가 있다 해서 싹 돌아섭니다. 그러면 바울은 바울대로 안타까워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눈물겹게 호소했습니다.(갈3:1)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내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모두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목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감람나무를 들고나와도 어려운 판인데, 이미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버린 그 역사를 다시 뒤집어 일으키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에 감람나무라고 했으니, 다음은 차라리 감나무나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나무나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나무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 죽은 놈을 살린들 도깨비장난이라고 하지, 누가 기적으로 볼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적을 행한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마12:24) 오늘날 제가 병을 고친다, 뭐 한다 해도 이영수 도깨비가 씌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긴자 감람나무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짓는 것은 흰 돌의 말씀입니다. 이긴자에게 준 흰 돌에 기록된 내용은 받은 자만 안다고 했습니다.(예2:17) 오늘날 그것 하나 들고나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장난은 다 해도 흰 돌에 기록된 내용을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로 박차고 나가

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흰 돌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목이 메도록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박혀야 합니다. 그것이 박혔을 때 하나님은 체계가 섰다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에게서 안찰을 받고, 시체가 변하는 걸 보고, 생수를 마시다가도, 핵 돌아서서 떨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흰 돌의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품안에 있는 제자도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넘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너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하다.” (마26:24)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신과 신의 싸움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역사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에게 사로잡힐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핵 돌아서서 주의 종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똑똑한 줄 알지만, 그게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놓고 이러니저러니 갖은 이유를 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그 나머지는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 ‘왜 이러냐? 왜 저러냐?’ 하고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핵



심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체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교회에서는 감람나무라는 한마디로 무조건 이단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어떻고, 이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 똑같은 놈이야, 하면 끝납니다. 얘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사형수에게도 목을 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줍니다. 한 번쯤 알아나 보고 이단이다, 삼단이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생사람 잡아 약질로 단정하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목수인 주제에 무슨 아들이야, 하고 정죄하여 못 박아 죽여 버렸습니다. 죽여 놓고도 미심쩍어 병사에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니, 병사의 입을 막으려고 돈 갖다 주고, 누가 훔쳐갔다 하라고 매수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경건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인사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가 20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버텨온 것은 주께서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꿈에나 한두 번 삐죽 나타나셨다가 그만이면 못해 나갑니다. 모든 어려움을 박차고 나가는 것도 끊임없는 성령의 이끄심과 주님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오늘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 Chapter 17.

# 하나님의 근황



주의 종은 근래에 여러분에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근황과 주님의 처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직접 들었다고 해도 인간이 신을 증거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장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밖에는 은하계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우주를 벗어나, 음부라는 광대한 세계를 지나, 상상이 가지 않는 먼 세계에 하나님과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모래알만도 못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감히 이러쿵저러쿵 논한다는 것부터가 언어도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과 주님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을 필요로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권한을 맡겨 주셨을 때, 사양하는 저를 강요하시다시피 하여 세워 주신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주님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자상한 가르침을 받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은 내리시되, 이루는 것은 지상에서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 보고, 막연하게 찬송 부르고, 막연하게 믿을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하나님과 주님에게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계10:4)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써서 당시의 일곱 교회에 보내게 하신 것인데, 이 내용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필요하여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기 처지를 남에게 알릴 경우에 좋은 일은 말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내용이 듣는 상대가 자기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길 우려가 있으면, 자연히 망설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위대함을 밝히기는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리낌 없이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인간에게 어떤 아쉬움을 표시해야 할 처지라면 밝히기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무조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의 첫머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는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는 가차 없이 쳐 죽였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배반은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계획하신 일이 백이면 백 가지, 천이면 천 가지가 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거의 모두가 실패의 연속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변명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인류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왜 인간을 지었단고.” 하고 한탄하셨습니다.(창6:7)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하나

님은 사울이 자주 탄 짓을 하니까, “내가 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고 후회하셨습니다.(삼상15:11) 또 세레 요한은 하나님ی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리스도의 길 예비자로 올 것을 예언하시고(말4:5)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의심하여, 제자를 시켜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니까?”(마11:3) 하고 질문을 던지게 하니, 주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고 개탄하시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큰 이가 없으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마11:11)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役事)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무조건 됩니까? 저는 하나님과 주님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낡은 신앙관이 딱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밀어내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레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마3:11)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는 세레 요한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위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실망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

자 이사야에게, 메시아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사53:2-3) 그러나 당시에 제사장들도 이 말씀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절이 됩니까? “네가 항복해!”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호락호락하기는커녕, 막강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이래라저래라 하고 당부하십니까?

사장이 직원들에게,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놓여 있으니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 주셔야 이 부도를 막아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부탁했다고 칩시다. 사장이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면 사원들을 모아 놓고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장으로서 위신과 체면이 깎이지만, 혼자서는 회사를 살릴 수 없으니까 사원들에게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하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구태여 인간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상대하신다면 인간에게 전지전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엄청난 세력이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경우에는 전지전능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의 뜻을 정확

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결코 부인하는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왜?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라는 것이 뭐냐? “내게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을 나대신 무찔러다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마귀와 싸워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인류를 계속하여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기록이 모두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일곱 우리가 발하는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마귀를 상대하여 인간을 부릴 때 세우신 작전 계획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저처럼 성경 말씀을 자상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시대를 맞아 보잘것없는 제가 직분을 맡다 보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저도 처음 알게 되었고, 여러분도 처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다고 비진리이고, 이미 들었다고 해서 진리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앞으로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겠다.”고 지시하신 것은 제가 예뻐서, 잘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쓰려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

에게 좋은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고,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칭찬 받을 일도 있고, 책망 받을 일도 있고 —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은 오직 마귀를 무찌르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단을 묶어서 천 년 동안 무저갱에 처넣는다고 했습니다.(계20:1-3)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를 잡는 것입니까? 마귀를 잡는 것입니다. 마귀를 잡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계19:20)

또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주님을 성전으로 비유하고, 성전을 보호하는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을 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계 21:17-22 참조) 사도 요한은 보여 주시는 계시를 그대로 기록했을 뿐,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세상 사람들이 세미나를 열고, 박사 학위 따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 보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보물섬에 가서 보물을 캐려고 할 때, 그 보물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모르면 고생만 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알게 되면 곧장 가서 캐면 끝납니다. 알고 모르는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반교회에서는 계시록은 골칫덩어리로 간주하여, 가르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계시록을 덮어둡니다. 실제로 계시록은 골치 아픈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계시록의 내용을 쉽사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비유



로 말씀드린 보물섬의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2:17)는 말씀대로, 받은 사람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학무식한 이영수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내 입술은 하나님의 마이크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들으라는 것입니다.

‘일곱 우리가 발한 것들’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도 모르는데,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이긴자 감람나무는 사실상 세상의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누구를 상대하기 위해서입니까?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마귀를 상대하는 일에 충

성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상대하지 않는 일에 충성해 봤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만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라고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마귀를 상대하여 싸우는 군병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요컨대 자격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꺾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 Chapter 18.

#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자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뺏속까지 감찰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근황조차 모르고 섬겨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신앙을 심어 주시는 과정에서 당신의 근황을 알리지 않고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만 절대시해 왔고, 현재도 온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固定觀念)이 머릿속에 딱 차 있으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언제나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데 필요한 존재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는(삿 5:23) 일은 생전 가야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으레 하나님

께 도움만 요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을 드릴 생각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단지 하나님만을 만능 해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다는 주의 종의 말이 귀에 거슬러, 자칫하면 오해할 우려도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이뤄 가고 있는 주인공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근황에 대해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정을 감히 운운한다는 것부터가 언어도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여건을 조심스럽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의 종부터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면도 없지 않지만, 그것을 덮어 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못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눅4:1)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가셨던 것입니다. 이 물세례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의 방법으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그 전에는 아무도 물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잉태되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하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사가랴가 제사를 지내러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눅1:13)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代)가 끊길 수밖에 없는 집안에 자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나 귀엽게 자랐고, 장성한 후에는 사람들이 그의 말이라면 누구나 따랐습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구름 떴처럼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의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왕의 부정을 때릴 정도로 위력이 있었으며, 주님은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주님과 함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주님은 목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실 때의 주님과,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셨을 때의 주님은 다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의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됩니다.

마귀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집에서 목수의 일만 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다음에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임

한 성령이 자기에게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귀는 당연히 긴장하게 마련입니다. 이때 주의 존재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임무가 달라집니다. 마귀는 성령이 임하고 임하지 않은데 따라 전혀 다르게 대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대하는 태도는 이 역사에 몸을 담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입은 주님은 “내가 이제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공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스이 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마귀를 대적해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마귀를 대적할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마귀와 싸우라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여전히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위해 일한다면, 훈련(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인은 적을 상대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갑니다. 그

곳에서 적과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주님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귀와 본격적으로 대적하려면 우선 마귀와 부딪쳐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눅4:1-13) 광야에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의사대로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끌려가야 하고, 또 실제로 성령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실제로 끌려온 체험자입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도 남습니다. 주님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지거나 후퇴한다면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일체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천하만국을 주님께 보여 주면서 ‘이건 내 것이다’ 했다면,(눅4:6 참조) 그것은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도 아니라고 판명된 겁니다. 지금 나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교회에서는 오늘날까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지배한다고 가르쳤습니

다. 기독교가 이 지배권을 문제 삼은 적도 없습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도 이런 말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증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증거하고 싶어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가 되면 밝히라고 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사정을 알아야 주님을 도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마귀는 주님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마귀는 일반인에게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권세와 영광을 넘겨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넘겨주었겠습니까? 마귀의 괴수인 용이 넘겨준 것입니다.

오늘날 앞선 역사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감람나무가 아니지 않느냐, 어찌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영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도전한 마귀가 앞선 역사에 도전했고, 지금 저에게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마귀의 제의를 딱 잘랐습니다. 그럼 주님에게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까? 그놈에게서 받아야 있는 거지, 받은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성서적인 이치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라도 좋습니다. 내 녹음테이프를 듣거나 설교집을 읽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문제가



못 됩니다.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마귀의 제의를 주님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권세는 계속해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건재해 있는 한 하나님과 주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시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일반 기독교 신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를 주관하실 수 있는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만 좌지우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못합니다. 마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알게 됩니다. 영의 싸움에 대해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감람나무를 인정하지 않고 혼자서 한다고 하여 주님의 눈 밖에 나고 버림을 받아 그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 도전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한 마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주동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마귀가 나타나, “예수만 버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날 시험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좋다.” 하고 마귀의 제의를

받아들였더라면, 나는 여기 서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세상에서 어떤 면으로나 두각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의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느 쪽에도 끌릴 수 있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래 빛에도 상대가 못되고, 어둠에도 상대가 못됩니다. 왜? 상대는 신이고 우리는 육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을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18:27) 우리 자신은 신을 상대할 수 없어도, 우리 속에 신이 들어가면 신의 상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둠의 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악령)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 신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신을 보내 주십니다. 마귀를 상대하라고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선 역사에서도 이슬과 같은 은혜의 신을 받으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대답은 들어나 마나입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54억이 다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싸움은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저를 내세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한 사람씩 빼앗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뺏으면 주님의 것이 되고, 뺏기면 마귀의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뺏고 뺏기는 데서 죽고 사는 문제가 왔

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영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 종이 무엇에 주력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서 안찰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잘 믿었든, 못 믿었든, 안찰을 받게 되면 그에게 성령이 강압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그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던 탄 신이 나가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다가 부딪쳐 깨지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성령을 주입시켜 그 속의 탄 영,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음녀가 다스리는 영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 주의 것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잘 믿느냐, 못 믿느냐보다 뺏느냐, 못 뺏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교회에는 열심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내세워 봐야 소용없습니다. 음녀가 지배하면 음녀가 왕입니다. 그 놈을 몰아내고 주님이 지배해야 주님의 세계가 됩니다. 그 놈이 지배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싸우니까? 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상대를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이런 상황을 성서에 기록하도록 사실대로 친히 간증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깊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벧전5:8) 그리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요1:5)

오늘 이 시간에 수십만이 모인 교회에서도 예수를 안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성경 끼고 교회에 가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압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주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마귀가 발등상 되게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시110:1, 마22:44) 발등상은 주님이 마귀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마귀가 발등상 되게하기를 기다리신다면 주님이 직접 하십니까? 인간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 Chapter 19.

# 알곡과 가짜 포도송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利)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을 계속해서 읽어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질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

이 밍하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달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계14:17-20)

위에 인용한 성경 본문을 보면, 15절 말씀에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17절 말씀에도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다 성전을 주관하는데, 소임이 다릅니다. 15절에 나오는 천사는 땅의 성전을 주관하고, 17절에 나오는 천사는 하늘의 성전을 주관합니다. 땅의 성전에서 낮을 휘둘러 거두는 자는 구름 위에 앉아 있고, 하늘의 성전에서 낮을 휘두르는 자는 하늘의 천사로 나와 있습니다.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하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낮을 든 존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며, 그는 인자와 방불하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가 낮을 가졌는데 지상의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가 그에게 하는 말이, 지상의 성전에서 곡식이 익었으니 거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땅의 성전은 우리가 예배를 보니까 잘 알 수 있는데, 하늘에 무슨 성전이 있느냐, 하고 궁금하게 생각될 겁니다. 성전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성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자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있는 장소를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이(利)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요15:5) 하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요15:2)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송이는 주님이 포도나무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안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를 거둬서 성 밖으로 내쳐 버립니다. 이게 참 포도송이입니까, 거짓 포도송이입니까? 포도송이는 포도송인데, 주께 연결되었다고 떠들지만 전체가 가짜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난다고 했습니다. 포도에서 무슨 피가 나와 포도주 틀을 적십니까?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은 자가 알곡을 다 거둬들이면, 다음에는 가짜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포도송이로 자부한 자들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도 그 내용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있는 천사가 이한 낫으로 거뒤틀어지는 지상의 포도송이는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들입니다.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1,600스다디온은 약 320km나 되며, 이스라엘 남북의 길이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온 땅에 퍼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거룩한 성안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시작할 때 주님이 이 성경 구절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할 일은 이거고, 천사가 할 일은 이거다.”라고 구분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는 일은 주의 일을 대행하는 자가 지상에서 하는 역사입니다. 익은 포도를 거두는 일을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한쪽은 거뒤틀어서 천국 창고에 들이고, 한쪽은 거뒤틀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작살냅니다. 여기서 분명히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럼 땅에서 곡식이 익어서 거뒤틀어지는 역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둘 수 있습니까? 땅에서 곡식이 익어야 제단을 주관하는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 천사가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구름 위에 앉는 자가 하는 일이 끝나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외딴 산골짜기에 교회를 지어 놓고, 알곡성전이라 하여, 이(利)한 낫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알곡을 거두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기독교 역사상 있었는지 알아보십시오. 계시록의 내용은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해석하면서 그대로 만들어 가는 것은 주인공이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름 위에 앉은 자가 알곡을 거두는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이 끝나니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하늘의 성전, 즉 지성소를 주관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즉 그것은 지구상의 알곡성전에서 사실상 지성소에 필요한 성도의 수가 차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가? 마귀를 작살내기 위해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땅에서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사110:1, 마22:44) 당신을 대신하여 움직이는 자가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람나무의 그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잘 믿는다, 못 믿는다 — 이걸 옛날에 예수 믿는 구분입니다. 감람나무 시대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줄기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면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령과 악령의 투쟁 속에서 어느 쪽에 속하

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판가름 납니다. 옛날처럼 성경이나 끼고 교회 문턱을 들락거리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포도주 틀에 던짐을 받는 포도송이는 주님을 알고 믿노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어찌자고 거둠을 받아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 수가 적습니까? 엄청납니다.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계2:7)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 전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느냐?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가르침을 받지 못했느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 Chapter 20.

# 하늘의 성전에 대하여



우리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반교회와는 믿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지적했지만 계시록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계13:2)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유다서까지 다분히 하나님과 주님만 중점적으로 심어 놓았으므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용과 짐승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은 마귀의 괴수이고, 짐승은 천년세계를 지나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 앞잡이로 등장하는 마귀이고, 음녀는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막강한 권세를 갖고 지상을 지배하는 마귀로, 용, 짐승, 음녀는 모두 마귀의 호칭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적대 세력으로, 인간이 알기 쉽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막강한 적대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리한 조건에서 마귀와 싸울 때 힘의 비율을 7 대 6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는 수는 7이고, 마귀가 가진 수는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지상의 인류 전체를 장악한 상황에서(계17:15)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씨앗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녀의 앓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계17:15)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2천 년 동안 일반 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학자들도 단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 그 내용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2천 년 동안 기독교 신자는 줄잡아 100억이 넘을 것입니다. 이들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자기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지상은 마귀가 주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네가 왜 남의 세상에 와서 함부로 까부느냐!”는 것입니다. 지상의 지배권을 마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성서적으로 확증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요3:19)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뺏느냐 빼앗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빼앗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은혜의 촛대가 옮겨진(계2:26, 3:21 참조) 이 시대에 십자가를 100만 개 달아 놓아도 지배자가 어둠이라면, 그 십자가는 어둠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배권에 대해 성서적으로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지전능 하시다고만 배운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를 점령하여 지배했을 때, 세금은 독일에서 거둬 갑니다. 남의 나라 얘기를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일제강점기 때, 알맹이는 일본에서 다 거둬 가 버립니다.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 중앙청에 태극기 대신 북한의 깃발이 올라가면 그들이 다스럽니다. 지배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오셔서 주인 행세를 못하십니다. 왜? 주인이 탄 놈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천하만국이 내 거라고 말했잖습니까?(눅4:6) 원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것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네 이놈, 이 세상이 어째서 네 거냐? 내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아들인 내가 왔으니 내 거지!”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눅4:8) 왜? 마귀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하신 것을 지금에 와서 신학자들이 아니라는 말로 버틴다고 될 일이나 이겁니다. 이론으로도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가롯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가 즉시 그에게 침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움직이시는데도 사랑하고 아끼던 유다까지 마귀가 낚아채어 자기 부하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마귀가 시시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자까지도 하루아침에 핵 돌려 버립니다. 3년을 기른 사람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거느려도 이 모양인데, 저를 따르는 여러

분이야 말해 뭐 합니까?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어둠이 스며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는 침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주님께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마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실제로 도움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현상 유지를 해도 답답한 판인데, 거꾸로 역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측에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인류가 오늘날까지 대를 이어 번식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람나무가 나타나자 주님은 앞선 역사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나타나든 미국에서 나타나든, 박 씨건 김 씨건, 그건 아무래도 무방합니다. 나는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가 뭐 하는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일반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두 감람나무를 모세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는 위대해도 보통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보여 주실 때 양쪽에 나타났던 대단한 인물들입니다.(마17:3-4) 그런데 두 감람나무를 하나는 모세이고, 하나는 엘리야라고 설명해 놓았다면, 신학자들도 두 감람나무를 큰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 이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두 증인, 즉 두 감람나무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계 11:3)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라진 인물입니다. 주님이 두 감람나무를 택하여 심부름을 시키겠다고 예언하시고, 2천년이 지난 오늘날 그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아무나 내가 감람나무다 하고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연속극을 보았더니, 암행어사가 임금이 준 마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마패를 주운 사람이 그걸로 암행어사 행세를 해야 할 텐데, 나라 살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암행어사 노릇을 한답시고 목에 힘을 주며 주책만 땁니다. 마패를 갖고 있는 암행어사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에 마패를 내보이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 부정을 저지른 사또들이 찢절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맡은 사람도 그만한 자격이 갖춰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다 하고 100번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암행어사에게 임금이 마패가 있듯이, 감람나무라는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세운 감람나무다.” 하는 증거 말입니다. 한 나라에서 임금이 부리는 암행어사에게도 마패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람에게 아무 증거도 주시지 않고 “너 나가서 내 일을 해.” 하신다면, 어중이떠중이가 다 감람나무를 자칭하여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긴자 감람나무를 통하여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계21:6-7) 그래서 앞선 역사와 우리 역사에만 지금까지 생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감람나무 시대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행 2:17) 그것이 안찰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기독교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순리대로 절차를 따라 조직적으로 진행됩니다. 덮어놓고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눅6:44) 참 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속이 썩었는데 신령한 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계15:5-8)

여기 ‘증거 장막의 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장막성전이라는 명칭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린 양이 나오니까 “나는 어린 종이다.”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나는 예루살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밖에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감람나무가 되려면 생수도 만들어야 하고, 안찰도 해야 하고 또 ‘흰 돌’(계2:17)의 새로운 말씀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람나무가 됩

니다. 그리하여 모든 움직임이 성경적으로 맞아야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논하든 간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가 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야 따르는 양떼들에게 인정을 받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나는 메시아다.” 하고 물위를 걸어 다니시다가 날개가 돋친 듯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하실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다가 가신 것이 됩니다. 그래 봤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감람나무를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앞에서 인용한 본문에서 하늘에 ‘증거의 장막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 성막의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발동된 것을 뜻하며, 이 진노가 풀리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셋째 하늘’에 다녀온 바울의 이야기를 들먹일 것 없이, 하늘나라는 어마어마합니다. 지상에서도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이다, 소련의 크렘린 궁이다, 중국의 자금성이다, 그리고 한국의 청와대다, 하여 한 나라의 통치자가 사는 곳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왕의 수만 해도 14만 4천이나 됩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천막을 쳤습니다. 이

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옷감으로 세마포와 굵은 베가 나옵니다. 세마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고, 굵은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입니다.(렘 4:8, 겔7:28, 계11:3)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양반들이 가는 베옷, 즉 세마포를 입었고, 슬플 때에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내왕이 전혀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풍습이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 자신의 잘못과 백성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레16:17) 그러니까 365일이 1년이라면 364일은 지성소가 닫혀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는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 받기 위해 성소에서 날마다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사장이 15명이라면 한 사람이 한 달에 두 번 제사를 드리게 되고, 30명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1년 365일 동안에 드린 모든 제사를 총괄하여 하나님 앞에 대표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가는 베실로 짠 옷, 즉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옷을 입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지성소는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입니다. 앞에 인용한 성경 말씀에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하늘의 성전에 출입하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김 서방이 지상에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친다면, 그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배지를 보고 국회의원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아무리 광대해도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곧 그 자격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잘게 뺏거나 눈이 소복이 쌓였을 때 햇빛이 비추면 일곱 무지개 색깔이 반사되는데, 영의 세계에서도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몸에서는 그런 찬란한 광채가 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는 빛 되시는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광채는 태양처럼 어느 한 군데서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똑같은 광채를 발산합니다. 이처럼 광채를 발산하는 것을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비유로 표시하는 거지, 하늘나라에서 실제로 지상의 제사장이 입던 세마포 옷을 입는 건 아닙니다.

나는 전에도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성소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지성소로 들어갈 자

격자들이 입을 옷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저더러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이 세마포 옷을 입혀서 당신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일반교회와 얼마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계19:10, 20:4) 인간으로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증거를 받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 놓은 하늘나라의 온전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인용한 성경 말씀에서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전이 열려야 합니다. 성전이 열려서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나왔다면, 지성소에 있던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한 것을 뜻합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면 일정한 수의 십자가의 군병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져 행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럼 이 일곱 재앙은 누구에게 내릴 재앙입니까? 마귀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 구절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 그 내용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줄개가 아니라 간부급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말을 천사가 와서 반복해도 저주를 면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갈1:8) 자기가 전한 말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

물이 예언된 인물이나? 아닙니다. 주께서 즉흥적으로 들어 쓰신, 불의 성령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주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해서 천사를 들먹일 정도의 권한이 있었는데, 하물며 예언된 인물의 권한이 어찌 그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두 감람나무는 분명히 스가랴서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입니다.(슌 4:11-14, 계11:4-6) 누가 됐든, 그 주인공의 권한은 대단한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혔을 때,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은 제한한다고 했습니다.(슌3:9)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녹화한 것을 다시 틀면 똑같이 나오지만, 그것이 보기 싫어 지우면 없어집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어떤 죄가 녹화되었다면, 심판대 앞에서 틀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겨 놓았을 때에는 그대로 나오지만, 제해 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을 제한다’는 뜻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 안찰을 받으면,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모든 죄가 3-4초 안에 모두 지워집니다. 녹화되어 있는 죄를 모두 지워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가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녹화되어 있는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힐 때,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안찰할 때 하늘의 것이 와서 은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 Chapter 21.

# 지성소와 음부



기독교는 죄를 씻는 종교입니다. 죄를 씻지 못하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음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갓난아이가 죽어 시꺼멓게 썩어 가는 것도 원죄와 유전죄(벧전1:18)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안찰해도 아파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그 속에 물려받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요, 천국 가는 종교라는 것은 소위 민노라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며,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은 천국에 이르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

생을 얻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요6:5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하고, 병 고치고, 떡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모여들었으나, 중요한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던질 때에는 저마다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주님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여 하루아침에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그들에게, “내가 한 말은 육의 말이 아니고 영의 말이며, 육은 무익하다.”(요6:63)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요6:51)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요6:4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지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교회에서는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여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레17:11) 피가 없이는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히9:7) 즉 속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기 전에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은 요컨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히9:12)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이 우리 속에 있는 혼과 결부되어 영혼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과 결부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영혼이 될 것이고, 악령과 결부되면 악령이 역사하는 영혼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자는 성령의 슬하에 속하고, 후자는 악령의 슬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대로 자기 슬하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속하기를 원하시고, 악령은 악령대로 자기 슬하에 많은 사람들이 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의 세력 사이에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점령해야 합니다. 어디를 점령하느냐? 피를 점령합니다. 왜? 생명은 피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마7:21) 주의 살과 피, 곧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의 양식, 즉 ‘하늘의 만나’는 곧 생명이 되고, 생명은 곧 정결한 피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혼하고 결부되려면 우리 육체 속의 어디에 들어와야 합니까? 핏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칼슘 혈관 주사를 맞으면 직접 혈관에 들어가 돌아

가기 때문에 1초도 못 되어 심장이 달아올라 가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물체가 자기 핏속을 돌아다니는 증거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안찰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의 눈에 손을 대면 심장이 나 뱃속이 울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안찰을 받은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눈에는 수많은 신경 세포와 혈관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찰을 하게 되면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의 눈에 있는 세포 조직과 혈관을 통해 핏속으로 주의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치 혈관 주사를 맞을 때처럼 육체에 변화가 오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주의 피가 여러분의 핏속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피가 있고, 핏속에 여러분의 혼이 담겨 있는데, 이 혼이 담겨 있는 곳에 성령이 오면, 그 혼과 결부되어 영혼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인간은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는 피조물이고, 지으신 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영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혼을 갖고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는 정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혼이 하나님이나 아니면 어둠의 지배자에게서 오는 영을 받아 영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떠납니다. 그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가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어둠의 영이 들어와 영혼이 된 사람은 어둠의 세계로 갈 것이고, 빛의 영이 들어와 영혼이 된 사람은 빛의 세계를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에 누구의 영과 결부되어 영혼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안 됩니다. 살아 있는 동안이라야 합니다. 왜? 죽은 다음에는 영혼이 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둠의 영을 받으면 악령의 영혼으로 변하고, 빛의 영을 받으면 성령의 영혼으로 변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날 때부터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양양 울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둠의 영혼으로 움직임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혼에 결부되어 영혼이 되어야 그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연결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주의 살과 피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핏속에는 우리의 혼이 들어 있고, 주의 핏속에는 주의 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주의 영이 우리의 혼과 결부되면 주의 영혼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에 우리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의 강도에 따라 주의 영혼으로 바뀌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가령 약 70% 정도 주의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면 세마포를 입을 수 없습니다. 세마포를 입으려면 주님으로부터 오

는 성령이 완전히 주관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마귀가 막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첫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망이 뭐고,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육이 죽어 음부로 끌려가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심판 후에 영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과 같은 영체로 변한 영들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므로 첫째 사망에 해당하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주의 보혈이 인간에게 연결되려면 주의 피가 와야 합니다. 그럼 주의 피는 어떻게 오는가?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7:38)고 말입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여 된 생수는 영안이 뜨인 사람의 눈에 별경게 보입니다. 주의 피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주의 종이 손을 대었을 때, 생수의 성령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비유해 말하면 여러분 속에 주의 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피가 여러분의 피와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에 몸담기 전에는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찰을 하면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어둠의 영과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찰하면 주의 종의 손이 시꺼멓게 멩드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것은 싸움의

표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많이 벗겨졌기 때문에 덜하지만, 우리가 부흥이 돼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주의 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 100명만 안찰해도 제가 녹초가 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 있던 어둠의 영이 빛의 영에게 쫓겨날 때에는 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로 악령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영은 영이 아니면 쫓아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기 속에 들어간 영을 자기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나가라고 호통을 쳐도, 발버둥을 쳐도 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영 때문입니다. 어느 영이 지배하느냐로 판가름이 납니다.

떡을 떼어 가지고 ‘이건 주님의 살’이요,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주님의 피’요, 해서 백 번 먹고 마셔 봐야 그 속에 있는 영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피는 피로 씻게 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갖고 있던 것은 사망하는 생명입니다. 이 사망하는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속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속사람이 변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고후4:16)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더러운 피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다시는 네게 어둠이 깃들지 못할 것이며, 너를 통해 내 것이 나간다.”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이 피의 정화 작

업을 위해서입니다. 20년 동안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에 묻혀 사는 데도 나에게 어둠이 깃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야 할 종이므로 주님이 0.1초도 떠나지 않고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에만 서면 은혜가 연결되고, 안찰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물을 축복하면 생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 20년 동안 계속한 겁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우리 역사는 각자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회자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령)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모두가 신의 조화입니다. 이것 세상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차원에서 백 번 논해야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예수를 불러도, 여러분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가기 싫어도 어둠의 세력권으로 가야 합니다.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혼이 어느 영과 연결된 영혼이냐에 따라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전에도 말한 대로, 오늘날 이 시대는 음녀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계17:15) 그 마귀의 지배하에서는 성인군자도 자동적으로 다 끌려갑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면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이것 우리 역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만 해도 수십만이 모여 예배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데려갈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시겠습니까?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지상에서 주의 피권세를 맡아서 역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계2:17, 21:6-7)

옛날 노아 시대에 인류를 멸하신 하나님은 당시에 수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노아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가 배를 다 짓기를 수십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노아의 씨를 통해 당신에게 충성하는 새 인간을 배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 시대를 보십시오. 400여 년을 애굽 땅에서 길러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서는 초능력을 행하여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으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목이 곧은 인간으로 변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당신에게 충성하는 새 인간을 배출시키려고 하셨습니다.(민14:12)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이끌어 낸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죽이셨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의 죄를 다시 한 번 사하여 주옵소서.”(민14:15-16)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감람나무의 역사는 성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속4:12-14, 계11:3-4) 예정된 역사는 많지 않습니다. 주님 말고는 주의 길 예비자로 예정된 세례 요한과 감람나무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주의 길 예비

자였고, 감람나무는 재림주의 길 예비자입니다. 하나님이 전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고(말3:1) 후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슥4:14) 또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즉흥적으로 쓰시는 종들과는 다릅니다. 그만큼 비중이 큼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되었을 때 주님이 당황하신 것입니다. 그걸 다시 세우는 역사가 초비상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저절로 오신 게 아닙니다. 저와 주님이 합세하여 일해 나가도 오늘날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역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구를 악령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 구멍 하나 뚫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빼내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영의 역사를 빨리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 흔들립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니까? 이긴자요, 감람나무입니다. 주의 권세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도 나와 주님 사이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끌어내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영혼으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건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기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아직도 어둠



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영이 거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한 번 은혜를 받고 쏟아 버리면 7배나 강한 어둠의 세력이 침투하게 됩니다.(마12:45)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속에 어둠의 세력이 남아 있으면 음부로 가야 합니다. 이때에 하늘나라에 가는 영혼은 100프로 빛의 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20프로는 어둠의 세력이 남아 있고 80프로가 빛의 세력이 지배하더라도, 그 20프로 때문에 음부에 가서 장차 베풀어질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계20:12) 과거에 순교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은혜 받고 50프로, 60프로 이루어졌다가 순교하는 순간에 몸의 산 제사로 말미암아 100프로 이루어져, 그 영혼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주님이 순교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순교는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은혜 받아 70프로 이뤄졌다면, 나머지 30프로를 주의 종이 씻어 주지 않으면 세마포를 입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마포는 이렇게 해서 입게 하는 것입니다.(계19:8)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신(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고전6:17) 여러분 속의 혼이 성령과 결부되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롬8:9) 어제까지 어둠의 세력에 의해 지배받던 사람도 오늘 여기 와서 안찰을 받아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주의 영이 지배하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에 다시 어둠의 세력이 침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과 악령은 여러분을 사이에 두고 싸웁니다. 이때에 여러분을 빼앗아 가는 어둠의 영이 음녀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려고 싸우는 것이 계시록에 해를 옷 입은 듯한 여자의 역할을 하는 이긴자입니다. 이 양자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녀가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이쪽에서 여러분을 상대방에게 내줘야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계14:4 참조) 이 여자는 많은 물위에 앉은 음녀를 가리킵니다.(계17:1)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계17:15) 이 마귀가 지금 왕에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읽고도 그 내용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지상에서 이 음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자가 이긴자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도 음녀가 지배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뺏어내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Part 04.

# 섭리 안에 부름을 받고



22. 영적 귀향에 대하여 · 23. '처소를 마련하라 가노니' · 24. 하나님께 필요한 인간이 되라 · 25. 새 신학의 정립을 위하여 · 26. 전우애를 가지라 · 27.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삼각관계 · 28. 인간이란 무엇인가? · 29. 왜 하나님의 역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가?

## Chapter 22.

# 영적 귀향에 대하여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영과 혼을 동일하게 표시한 곳도 있어(왕상17:22, 눅8:55) 이를 해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요4:24) 인간은 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혼에 결부되어 영혼이 됩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 영’, 곧 악령이라고 합니다.(엡6:12) 이 다른 영이 인간의 혼에 결부된 것도 영혼입니다. 이름은 같으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성령의 조화이고, 하나는 악령의 조화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어느 한쪽의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데, 성령과 결부된 영혼은 빛의 세계로 가고, 악령과 결부된 영혼은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째 부활’(계20:5)과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에 속한 영혼이 최후의 심판을 받은 후 불못에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계20:14)

앞에서 말한 두 영들끼리 벌이는 영의 세계의 접전지를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지구상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영의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은 인간을 짓기 전부터 있는 신의 존재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계16:14) 그 마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즉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계16:13) 주의 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근본 원인이 이 악령들에게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이나 소개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시대라면 나도 편안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유리한 영혼을 소유한 인간을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영혼은 그 혼이 성령과 결부됐든, 악령과 결부됐든,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성령이나 악령은 인간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거하게 됩니다. 동물은 하나님도 마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무당이 굿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당 속에 악령이 들어가 그녀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당의 혼에 악령이 접한 영혼의 조화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성령이든 악령이든 간에 인간에게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즉 서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먼저 지배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성경에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될 때부터 성령이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지배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악령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8:44) 이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려고 할 때, 악령이 순순히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과 영끼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때 인간은 성령과 악령의 전쟁터가 됩니다.

한 영이 들어가 다른 영을 쫓아내려면 그럴만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비어 있는 자리에 들어가 차지한다면 마찰이 생길 리가 없지만, 이미 차지한 세력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점령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앞선 역사에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어둠에 점령된 후에 그 점령한 영을 밀어내고 주님의 영을 다시 주입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들어가 있는 악령을 쫓아내고 성령이 차지해야 성령이 그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감람나무 시대에는 십자가 아래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은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된 앞선 역사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뺏느냐 마느냐 하는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빼앗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고, 빼앗지 못하면 어둠이 지배하는 그대로 끝나 버립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갈등이 아닙니다. 신과 신끼리의 문제다 이겁니다.

이것을 육안으로 봐서 납득이 가고 수공이 가느냐 —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뺏고 뺏기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이기고 봐야 합니다. 지상에서 하는 전쟁도 패장(敗將)은 유구무언(有口無言), 즉 입은 있으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사를 판가름하는 영의 전쟁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안찰이 뭐냐? 사람에게에는 저마다 지배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지니고 주의 종에게로 나옵니다. 이때 주의 종이 안찰하면 하나님의 신이 쉽사리 그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세력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가는 세력과 가로막는 세력

사이에 자연스럽게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찰을 받을 때 고통을 겪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강하게 지배할수록 고통이 적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성령을 침투시키려고 하는데, 문을 꼭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면 고통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불통(不通)으로 끝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지배하던 악령을 완전히 몰아내어 성령이 일방통행을 하게 되어도 역시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측 세력이 강하게 부딪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 영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귀 측에서도 그동안 인간을 통하여 엄청난 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측에서도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력을 길러야 합니다. 인간이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간다면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었다 안 믿었다, 혹은 잘 믿었다 못 믿었다는 것으로 결판이 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들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육을 갖고 있을 때의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기독교의 내용이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체가 되게끔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지금 이 단상에 서서 성경을 풀이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드는데는 하늘에서 주시지만, 만드는데는 땅에서 제가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가로막는 세력들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산으로 가려면 기차표나 버스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이 뭐냐? 자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을 만큼 이루어져야 합니다.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하던 원치 않든,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한 살 때 죽든, 두 살 때 죽든, 노인이 되어 죽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은 그 영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을 받은 영혼은 빛의 세계로, 악령을 받은 영혼은 어둠의 세계로 영적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연어가 강에서 부화되면 바다에서 4년 내지 5년 동안 자란 후에 산란한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습니다. 연어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 먼 바다에서 용케도 그 개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연의 섭리’라고 합니다. 한갓 물고기에도 섭리가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어찌 섭리가 없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신의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알고 보면 참 묘한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게 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명체가 되어 지상에 태어났을 때 만일 음부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혼과 합

세하여 영혼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숨이 넘어가자마자 그 영혼은 자동적으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온 곳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온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지배하고 있다가 본고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빛의 영이 들어가서 영혼이 만들어졌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자동적으로 빛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에 무슨 영이 여러분의 혼과 결부되어 영혼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롬8:9)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기독교 신자라 할 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배권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면(계17:15) 그들이 죽었을 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지배권을 빼앗기면 밑에서 잘 믿고 못 믿고를 따질 계제가 못됩니다. 구원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측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에게 빛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의 종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대는 너를 통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이게 어디 누구에게나 납득이 가는 논리입니까?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무슨 개소리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 자신부터가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소상한

가르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서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죽었을 때 주의 종이 생수 축복하지 않고, 어디 한 번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찬송, 기도하여 뺨뺨이 굳은 그 시체를 변하게 해 보십시오. 철야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입김을 부어 만든 생수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옛날식으로, 믿으면 되는 시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끌려가는 것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그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둠의 세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는 못 가!” 이렇게 제지하지 못하십니다. 왜? 이것이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의 세계를 가는 것을 마귀가 “너는 거기 못 가!” 하고 막지 못합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했지만, 이것이 신과 신의 ‘룰’(규례)입니다.

어디서 온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 어떻게 제자리로 가느냐 —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디서 싸우느냐? 지상에서 싸웁니다. 영끼리 서로 지배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안찰할 때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놓고 합니다. 여러분을 음부로 데리고 갈

영을 몰아내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영을 심어, 죽은 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된다면 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어도 주님이 뽑아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영적인 지배권은 어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 일을 훌륭히 했다, 장로 일을 열심히 했다, 뭐 했다 — 이런 분들이 아까운 겁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오신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아래 바로 서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손뼉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잠이 안 옵니다.

주의 종으로서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이게 이긴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대로 고심하게 되고, 따르는 여러분도 시달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안찰하면 여러분 속에서 빛과 어둠이 서로 부딪칩니다. 일은 밑에서 하지만 싸움은 위에서 신끼리 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선 뺏는 게 급선무입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는 자를 빛 가운

데로 끌어내어,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야 합니다. 옛날처럼 이 사람도 열심히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저 사람도 열심히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시대라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직접 역사하는 시대였으니까.(히5:10) 그러나 감람나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역사가 나타난 다음부터 주님은 감람나무만 상대하십니다.(계2:26, 3:21 참조) 그래서 가령 저 용문산의 나운몽 장로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마귀에게 씌어 가지고 앞선 종에게서 안찰을 받으면 아파서 까무러치고, 머리에 혹이 불쑥불쑥 돌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무슨 마귀가 들어가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마귀가 들어가 장난한 것이 안찰을 통해 나타났겠습니까? 일반교회에서 방언을 받았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찰을 받으면 게거품을 뿜으면서 나가자빠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던 역사가 것처럼 무참히 무너졌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특명 때문에 내가 꿈쩍달싹 못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주님이 어둠을 상대하여 직접 나설 수 있으시다면, 구태여 안타깝게 이긴자가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옛날 사도 바울은 주의 지시를 받아 움직일 때에, “내가 너희에

게 할례를 폐지시키지 않았던들 누가 나를 핍박하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고통이 두려워 할례를 폐지시키지 않고 율법주의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면, 너희들에게는 존경받을지 몰라도, 주의 저주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갈1:9) 하고 말했습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을 주님에게 연결시키는 중개자의 역할을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의 것이 들어가 여러분의 혼과 결부되어 빛의 영혼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에 누가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을 주의 영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영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안찰을 받고 까무러치는 것은 그 속에 여기와는 반대되는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지 못합니다. 영은 영이 아니고는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영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 측에 속한 군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입니다.(계19:8) 이들만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전쟁할 때까지 지성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계6:11) 우리 앞에 이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역사를 이끌어 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일반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저를 통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손길을 통해 은총이 나가지 않고, 제가 축복한 물이 생수가 되지 않고, 제 입에서 진리의 말

숨이 나가지 않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가망이 없다면, 이 역사에 몸담은 여러분은 이 역사를 외면해도 좋습니다. 아니 외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 묵묵히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러 불원천리하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인간 이영수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통해 주의 것을 얻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왈가왈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뭐 볼 게 있습니까? 제가 인격자입니까, 배운 게 많기를 합니까, 제게 무슨 흥미할 만한 점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목회자를 보려면 다른 교회에 가십시오.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명 때문에 오늘날 여기 서서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이영수를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앞선 역사에서 도깨비니, 탄따라니 하고 짓밟았는데, 뭐 내게서 볼 게 있습니까? 저한테 뭘 따질 겁니까? 여러분은 이것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나? 어둠의 세계에서 사람을 낚아채어 어린 양의 신봉감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군병을 배출시키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군인에게 옷도 주고 장비도 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일선에서 나라를 지켜 줘야 후방에서 평안히 살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래라저래라 하시는 것은 당신이 편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종의 방과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바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14만 4천을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계21:2) 14만 4천이 하나님과 주님을 에워싸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십자가의 군병’, 또는 ‘하늘 군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계6:2-3) 악의 세력과의 일대 접전이 벌어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13:8-9)고 했습니다. ‘경배’란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납득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패배뿐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주님은 우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패잔병을 환영하는 걸 봤습니까? 이기고 돌아와야 쌍수로 맞아 환영합니다. 패잔병은 군법회의에 회부하기가 일수입니다. 말로만 십자가의 군병을 운운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막강한 ‘짐승’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싸울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 주의 종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Chapter 23.

#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주님이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시다가 3년 동안의 공생활을 하실 때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요 14:2-4)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하늘나라는 아무리 넓어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따라서 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니, 가시면 어디로 가실 것이며, 또

지금까지 따라온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여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내가 바로 길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의 집에 아무도 가지 못한다.”(요14:6)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떠나는 것이 사실은 유익하니라.”(요16:7) 즉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어 훨씬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예비하게 된다는 처소가 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주님보다 이 땅에 먼저 온 선지자들이나 또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갔다는 겁니까? 갈 수도 없거니와, 가 봤자 거할 곳이 없습니다. 왜? 처소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아무나 가서 적당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주님이 “내가 길이니 나를 통해야 한다.” 하시고,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사야 등과 같은 선지자들이 죽어서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실 일이 뭔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님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만든 다음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억조창생 중에 하늘나라에 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없는 여건에서 갈 수 있게 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주님의 할 일이고, 그 길을 거쳐서 가는 사람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시는 것이 주님의 할 일라면, 주님이 대체 뭘 갖고 오시기에 그런 여건을 마련하시는가? 이에 대해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비로소 밝히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계1:18)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쇠가 뭘니까? 여는 것입니다. 잠가 놓은 것, 묶어 놓은 것, 가둬 놓은 걸 푸는 것입니다. 사망 뒤에는 뭐가 따릅니까? 음부가 따릅니다.(계6:8) 인간은 순교자 이외에는 자동적으로 음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에게 공통된 노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권세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를 건져 낼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을 바로 주님이 마련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다섯째 인을 뿔 때에 사도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성소에서 주님에게, “우리 피 값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계 6:9)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성소야말로 일찍이 주

님이 약속하신, ‘너희가 거할 처소’라고 말씀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성소는 누가 예비하셨겠습니까? 주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주님 덕분에 가게 됐습니다. 이들의 물음에 주님은, “아직도 내가 너희와 같은 순교자의 영혼들을 끌어올려야 하니, 정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계6:9)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근 2천 년 동안 지상에서 순교한 영혼들을 지성소에 끌어올려, 그 수를 채우고 또 채우는 작업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그 나머지를 채우는 작업을 저더러 대신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일 지구가 깨져도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을 채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셨고, 지금도 이긴자를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 주로 순교 당한 자들을 주님이 부활하신 후 건져 내셨고, 그 후 2천 년 가까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순교자를 끌어올려 채우셨고, 오늘날 그 작업은 이긴자 감람나무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권세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계2:27)

그리하여 앞선 역사에서 9만 명이나 그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이 9만 명 중에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감람나무가 뽑아 드리면 주님은 받아서 채우십니다. 그런데 앞선 역사에서 한 사람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고 안찰을 받고 생수를 마시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저는 그 자격을 갖추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갖추게 하는 사람과 갖추어야 하는 사람은 의견이 달라야 합니까?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 체계가 서야 여러분은 그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간다면 백 번 해도 갖추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14:15)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뭘니까? 주님의 지시를 준행하려면 거기 순응하여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주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오늘날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3천 년 전 모세나 들먹이고, 2천 년 전 바울이나 뒤적이는 것이 일반회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믿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움직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는 데서 선, 악의 기준이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당면한 과제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역사에서도 14만 4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떠들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통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 구약 시대에 배출된 하늘 군병의 수와 주님이 전 세계에 걸쳐 역사하여 배출시킨 하늘 군병을 합치고도 14만 4천

에서 모자란 수를 이긴자 감람나무가 채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수와 지상의 수가 차면 그 순간부터는 하늘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시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홍수를 내리시는 거지, 지상에서 노아가, 홍수를 언제쯤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한다고 홍수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다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홍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배를 만들기 전에 홍수를 내렸다가는 노아의 식구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십니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배만 만들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에게 “너, 이거 만들어 봐.” 하셨을 경우에 그거 만들면 주의 종의 할 일은 끝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늘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지상 과제(地上課題)입니다. 그럼 신, 구약 시대에 배출된 수를 알면 채워야 할 수가 몇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14만 4천의 수가 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밀이라 할지라도 그 수를 채워야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만 알라.”고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면서 입이 간지러워도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궁금하게 여겨도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라는 것을 밝힐 수 없습니다. 왜? 밝히는 순간, 마귀는 총력을 기울여 그를 까부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시간에도 그것을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주의 종이 밝히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지성소에 들어가면 마귀가 손을 못 대지만,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이라도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것을 극비리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곳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 작업은 하늘과 땅에서 호흡을 맞춰 가면서 말씀과 은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훼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그 속에 사단이 침투하면 금세 핵 돌아섭니다. 그러므로 정신 무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언제 뚫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할 줄 압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 같은 것을 통하여 이래라저래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성서에 각본이 그렇게 짜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14:2-4)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 박사들이 이 구절을 읽고 지나가도,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이 한적한 곳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종은 가슴을 조이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주의 종이고, 그 역사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일반교회처럼 안일하게 믿을 사람은 그리로 가면 됩니다. 여기는 불가불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겨야 합니다.



## Chapter 24.

# 하나님께 필요한 인간이 되라



하나님께서 만유의 회복(행3:2)을 위해,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기 위해 역사해 오신 지 6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시고자 하는 뜻을 선지자와 종들에게 미리 알리신 것을 우리는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뜻을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백지 한 장의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마7:21)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되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건짐을 받는 것과 버림을 받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농사

를 지을 때 벼에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는 곳간에 들고, 하나는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장차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라지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5:29) 세상에는 방방곡곡에 교회도 많고, 또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우리가 오늘날 “지극히 작은 일의 날”(눅4:10)이라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되어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자체가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여,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과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을 못 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묘히 가로막는 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꾸어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역사에서 보시다시피, 거룩한 곳도 어둠이 지배하게 되면 가증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들은 십자가 대신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복적거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십자가의 보혈을 열심히 증거하던 역사가 왜 이렇게 돌변하게 된 것입니까? 빛과 어둠의 역학 관계를 알게 되면 결코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거룩한 성전이었지만,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

기면 우상을 섬기는 신당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지어 놓은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신당으로 바뀌면 하나님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같은 장소가 거룩할 수도 있고, 가증스럽게 변할 수도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과 신의 싸움에서 빛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인간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면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고전2:13) 그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내린 판단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린 판단이 크게 다른 것을 체득하고 한 말입니다.

앞선 역사에서는 하늘에서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지만 제3자는 모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은 모르지만 받는 너희는 안다.”(요 14:17)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당시에 그 많은 국가 중에서 한반도의 남반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쪽같이 등장한 주의 종, 감람나무를 통해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뿌리를 알고, 그 근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렸던 역사가 그 지경이 되어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넓은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섭리 자체가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져 여러

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빚어지게 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여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안찰할 때, 방언을 받고 좋아하는 자의 머리에 흠이 돌아오고, 그 주인공의 입김을 부어 만든 생수로 시꺼멓게 굳은 송장이 부드럽게 변하고, 기도할 때 향취가 나며, 시체 썩는 듯한 죄 타는 냄새도 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폭발적인 신앙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열매를 맺게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만족감을 준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하나의 지나간 역사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성사시키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성패보다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현실들, 예컨대 홍해가 갈라졌다, 만나가 내렸다,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 등등의 기적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우선 눈앞에 나타난 현상에만 관심이 쏠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단을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매달렸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발자취는 알지만,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모릅니다. 그것을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알리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계획을 세우시는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전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만사형통하시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마귀라는 강력한 적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신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상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에덴동산에서 이 상대에게 지배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적을 상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히 갈등과 투쟁이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입니다.(눅4:6) 하나님의 종들이 빛의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빼앗겼

으니,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남의 세상입니다. 남의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위주로 쉽사리 될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일은 당신을 대신하여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늘 군병을 채우는 것입니다. **(계6:11)** 이것을 까맣게 모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그 주님을 통해 복을 받을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이것은 수박 겉핥기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이런 신앙이 아무리 돈독하면 뭐 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도와드려야 하는 섭리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고는 하나님을 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오늘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선 역사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앞선 역사처럼 폭발적인 역사가 없었으며, 또 앞선 역사처럼 무참히 패망한 역사도 없었습니다. 최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최대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심정을 헤

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옛날에도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적이 있었지만, (창6:6) 앞선 역사로 인해 보통 진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둘째 감람나무를 예비해 두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셨던들 재기의 엄두도 내실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역사가 소꿉장난같이 보잘것없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주의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저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달라는 것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주의 종을 통해 성서에 입각하여 조금씩이나마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한편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사 그 힘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지닐 때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에게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당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편 사명의 중대함과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후6:9-10)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존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참히 매장된 앞선 역사의 뒤를 이어, 이를 수보하고 재건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주님에게는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10억이 모이고 100억이 모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대견하게 여길지 몰라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과 직접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주님에게는 무관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도 주님과 이해관계가 이루어질 때, 주님은 그 한두 사람을 10억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역사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이끌어 가는 사람이 망한 앞선 역사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지치고 데인 사람들은 다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딴 무엇을 들고나와 외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



입니다. 그러니 어려워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따라오는 것은 대견한 일입니다. 우리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스가랴와 사도 요한에게 예고하셨던 것입니다.(슌4:14, 계11:4) 인기가 있건, 없건, 오늘날 20세기 후반은 감람나무 시대입니다. 초창기의 앞선 감람나무와 지금의 나중 감람나무가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역할을 행하였고 또 행하고 있는 것을 이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또 알고 보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 Chapter 25.

# 새 신학의 정립을 위하여



인간은 영의 세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성령)과 신(악령)의 전쟁을 인간이 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겹겹이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도저히 감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다만 신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신을 운운하는 것뿐입니다. 신은 강하고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의지합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의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힘의 원리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볼 때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우주 안에서는 조그마한 세계에 불과합니다. 이 우주 속의 태양계는, 비유해 말하면, 지구 속의 탁구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성경

에서는 태양계를 놓고 우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설명은 낮과 밤이 있는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창1:18)

오늘날 많은 천문학자들이 별의 세계를 측정하면서 천체의 움직임을 자세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성서에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주를 기록하였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커녕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아오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며, 그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에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후로 성경보다 더 깊은 내용을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종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 나 할 것 없이 성서에 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그 신학 안에서 신학자들이 등장했지만, 그 신학을 능가한 신학자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장면들을 보여 주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가르쳐 달라고 말하자, “가르쳐 줘도 너는 깨닫지 못할 터이니, 인지(人知)가 크게 발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올 때까지 봉하라.”(단12:4)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당시는 햇불로 밤을 밝히는 미개한 원시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알고 있는 지식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하나님의 종에게 과학이 발달한 마지막 때의 장면

을 보여 주셔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니엘에게 비행기를 보여 주면 비행기인 줄 알겠습니까, 로켓을 보여 주면 로켓인 줄 알 것입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나타난 주의 종이 설명해야 이 시대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대적 배경을 놓고 예언할 때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는 것이지, 그 배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의 규모가 엄청나게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우주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여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평평하고 하늘을 지붕으로 알던 시대에, 성서에 우주관을 제대로 기록한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백성이 알 수 있는 차원, 그야말로 밤이 되면 어둡고, 밤이 지나면 밝아지는 이런 태양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범위만큼 가르쳐 주시며, 따라서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비유컨대, 100개를 아는 분이 한 개밖에 모르는 자에게 100개를 다 가르쳐 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100개를 아는 분은 많아야 한 개 반 정도를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적으로 깊이 알게

되었지만,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모두 가르치면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 수준을 보아 가면서 조금씩 깊은 말씀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보여 주고 들려주시는 계시도 당시에 살던 백성들의 지식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자동차를 보여 주실 것입니까, 비행기를 보여 주실 것입니까?

달 하나를 두고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달에 직접 가 보기 전에는 계수나무가 있다, 뭐 어떻다 해서 달은 신비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달에 직접 가서 보니 돌멩이만 있고 삭막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 보기 전에 그렇게 생겼는지 누가 감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탈리아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중국 북경에 이르러(1275년) 오랫동안 중국을 살펴보고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으나, 당시에는 믿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갈릴레오(1564-1642)는 해가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돌고 있다는 이른바 ‘지동설’(地動說)을 주장했다가, 성서의 가르침(시19:4-6)에 위배된다고 하여 교권의 강요에 못 이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이를 취소하고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바울의 신학에 의존해 오는데, 이긴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그 말씀이 심어질 수 있느냐? 턱도 없습니다. 그게 쉽사리 심어진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에게 이긴자의 사명을 설명하고도, 때가 되면 밝히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제가 청량리에서 4대 강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집에 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그 설교를 외면하는 장면을 보여 주시면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네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믿지 않는데, 알고 있는 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체계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긴자의 신학은 바울의 신학과 크게 다릅니다. 일반교회의 신앙관은 바울의 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신학이 2,000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진작 이긴자가 나타나 새로운 신학을 심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 이긴자의 신학이 뿌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저도 주께서 한 증거의 성령으로 전 세계를 상대하여 역사해 오셨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긴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새로운 신학을 들고나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Chapter 26.

# 전우애를 가지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 여리고의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은 크게 두려워하여, 당시의 유명한 점쟁이인 발람을 데리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민22:6) 그가 저주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이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왕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발람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은 복 받은 자들이니 저주하지 말고, 발락 왕에게도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 왕의 신하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동행하여 발락 왕에게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니, 그렇게 알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할 수 없이 발락 왕에게 가서,

발람이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다고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신하에게 다시 가서 발람에게 금은보화를 듬뿍 주어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또 발람에게 나타나, 전에 당부한 말을 잊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시켜 발람이 발락 왕에게 유리한 예언을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 수 있습니까?”(민23:8) 하고 발락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고 이스라엘을 해칠 방도가 없다고 덧 붙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화가 나서 발람을 내쫓고, 모압 군대들은 의기소침하여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개입 하셨습니다. 인간을 통해 싸워야 하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점쟁이는 전쟁에서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점쟁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때 별을 단 장군들이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나 공장이 문을 열 때에도 고사를 지내고, 제상에도 으레 돼지 머리가 오르게 마련입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막상 위기에 부닥치게 되면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 가는 것을 여호



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민22:23) 하나님이 인간을 중간에 두고 마귀와 싸울 때 이렇게 번거롭습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쳐 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마귀는 인간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끼리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면 마귀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겼다, 졌다 하면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붙들어 아말렉 군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출17:11-13)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손이 올라갔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갔다고 해서 전쟁에 지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점쟁이 발람의 말 한 마디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려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마귀가 21일 동안이나 가로막아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장면이 나옵니다.(단10:13) 이것이 구약 시대에 일어난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시대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약 시대에 오면 율법을 돌에 새기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 새기게 됩니다.(히10:16)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크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사이에 두고 신과 신이 영적인 차원에서 대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요컨대 이것은 일반교회에서 믿고 따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해 온 신앙 운동이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역사는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종 사이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교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종교 운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도전자는 언제나 하나님 쪽입니다. 왜? 빼앗겼으니까 다시 빼앗아 오려는 것입니다. 앞선 역사가 한 일이 뭐냐? 한 마디로 말해서 어둠의 세계에 빛을 심은 것입니다. 주님이 도전했습니다. 도전하여 마귀의 손에서 9만 명을 빼앗았는데, 그걸 다시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그들을 다시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뺏고 빼앗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빼앗는 역할을 하는 자가 주의 종입니다. 어떻게 빼앗느냐? 하나님이

그 무기를 종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빼앗아 가도록 가만히 놔두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당연히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걸 빼앗아 오려면, 하나님은 고도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만큼이라도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앞선 역사는 씨를 뿌리는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감람나무의 그늘에 끌어들이기만 했지, 말씀으로 다듬어 세우고 하늘의 만나로 키워 알곡을 거두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지금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근황을 잘 몰랐으며, 그나마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 뒤를 이어 우리 역사가 이만큼이나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눈에는 하나의 종교 운동으로 보이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마지막 대접전(아마겟돈 전쟁)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군사를 배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엄청난 사명과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피차에 하나의 전우의식(戰友意識)을 느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전우애가 대단합니다. 옆에서 전우가 죽는 걸 보면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적진을 향해 돌진하여 싸우게 됩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군가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앞선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배반할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그걸 주님은 미리 아시고 “내 피를 짓밟고 모독한다. 너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다시 세워라.” 하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오늘날까지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는 길은 얼마나 폭이 좁습니까? 그야말로 ‘좁은 문’입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주의 종도 어렵지만, 따르는 여러분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미디안과 싸워 이겼습니다.(삿7:7) 이때 기드온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른 군사들도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주의 종에게 맡겨진 권한도 독특합니다. 전쟁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이영수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영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종과 호흡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기대했던 앞선 역사가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것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역사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그야말로 새 밭의 핏니다. 그 귀한 감람나무 역사의 주인공

이 엄청난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준행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앞선 역사에 몸담았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Chapter 27.

#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삼각관계



오늘날은 성경에 “지식이 더하리라.”(단12:4)는 말씀대로 과학이 크게 발달하여 우주의 신비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 전체가 아니라 태양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주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 광범위한 우주 전체를 성경에 기록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과 낮이 있는 지구를 토대로 하여 태양계를 천지로 삼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 6천 년 전부터 2천 년 전까지 하나님이 미개한 인간들을 가까이 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2천 년 전까지 종이나 사도를 통해 움직이던 말씀

으로, 2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근황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려 주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주님은 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더위와 추위를 느끼셨습니다. 욱신을 갖고 33년 동안 이렇게 지상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을 두고,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1:1)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욱신을 입고 추위와 더위를 느끼는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지구의 대기권만 벗어나도 욱신을 입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갔을 때도 우주복을 입지 않았으면 욱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버립니다. 로켓을 타고 사흘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달나라에 갈 때에도 우주복(宇宙服)을 입어야 합니다. 그 우주복이 조금이라도 찢어지면 달나라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생선도 잡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에게도 나타나 이야기도 나누셨으며, 도마에게는 손에 찔린 못자국도 만져 보게 하셨다고 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욱신을 입고 계셨던 주님과 다시 사신 주님은 전혀 다릅니다. 이때 주님은 욱을 벗어 버리고 본래의 신령한 영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셔서 그때그때 우리 눈에 보이게 움직이신 것은 권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별은 약 6천 개 정도이고, 성능이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 보면 약 3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약 2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 별 하나의 크기가 지구보다 100만 배 내지 200만 배나 크며,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보통 몇 년 단위가 되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더욱더 엄청난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하계 안에 있는 별 하나가 폭발하여 태양보다 수백만 갑절의 빛을 발산했는데,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니 그 빛이 어제 지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130만 광년이 나 되는 먼 거리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별빛이 아직도 지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별의 존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벗어나서 있는 어둠의 세계, 즉 마귀의 세계가 ‘음부’입니다. 이 세계 역시 우주 못지않게 크고 광범위합니다. 이 어둠의 세계를 지나서 펼쳐지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빛의 세계입니다. 바울이 말한 낙원, 곧 ‘셋째 하늘’(고후12:2)이 바로 빛의 세계요, 그러므로 멀다는 말이 성립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거리입니다.

주님은 지구에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여 그 머나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만일 주님이 나사렛 예수로 계셨던 육신을 입고 가셨다면 지구의 대기권도 벗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빛의 속도로 날아가신다고 해도 부활하신 것이 2천 년 전이므로 지금쯤 태양계를 벗어나 우리 은하계를 가시는 중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주 밖의 음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빛입니다. 그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세계까지 도착하려면 적어도 수백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생수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세계에서 도착하는 은혜는 0.1초도 안 걸려서 옵니다. 빛의 속도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영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어떻게 감히 신의 세계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간을 치리하신 기록에 불과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대체로 친근감을 갖고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당신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때에는 진노하여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신입니다. 인간과는 다릅니다. 이 두 신의 움직임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기를 때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다른 가정의 어머니와 언쟁을 할 때에는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가 오고 갑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가 알아듣지 못하고 또 알아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 어른의 세계는 어린이가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어 다니는 아이에게, 예컨대 누가 유능하니 투표하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우유나 갖다 주고 딸랑이나 흔들어 주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어머니에게 친근감을 가집니다. 자기를 돌봐 주고 자기가 배고플 때 먹여 주니까 “엄마! 엄마!” 하고 찾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5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너 이거 가져라.” 해야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당하게 당신의 일면을 드러내 보이신 것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인간은 잘 이해하지 못하여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는 인간의 한계에 알맞게 대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제외하고 신과 신끼리 대적할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해 주시는 한계만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신과 신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이 마귀를 상대하는 데 필요해

서 부름을 받은 예언된 종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벅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싸우는가? 전에 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마귀에게 빼앗긴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해 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이들을 꼬여낸 세력을 무찌르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상대하여 마음대로 처치하실 수 있다면 작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작전을 세우셨다는 것은 상대방이 막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 하와가 자기 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내면 마귀는 가만 있습니다. 피고 어찌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와 그 후손들이 자기에게 도전할 것을 알면 가만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있으면 불원에 당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적을 꺾어서 역습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영광을 받으려고(사43:7) 아담, 하와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왜 마귀가 와서 한사코 훼방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영광만 돌린다면, 마귀는 인간을 쫓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밤낮 하나님을 향해 참소하는데(계12:10)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라는 존재를 완전히 소탕하기 전에는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면 이 존재를 쳐부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마귀와 싸우는 군병으로 쓰시려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인간을 교묘히 자기 군병으로 삼아 하나님을 향해 역습을 꾀하는 것입니다.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을 치른 우리나라에 감람나무가 나타나고, 그 초강대국의 하나가 몰락한 것은 신과 신의 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까부수기 위해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의 귀한 형상을 저도 입게 합소서.’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마귀를 상대하실 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 마귀의 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시 당신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럼 마귀는 어때냐? 마귀는 마귀대로 인간이 자기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하여 태초부터 인간을 중간에 두고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하고, 마귀도 하나님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양쪽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쳐서(계14:1) 당신의 편을 만들려고 하시고, 한편 마귀는 자기 부하를 앞세워 인간의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계13:16)

이렇게 해서 이쪽을 섬기는 무리와 저쪽을 섬기는 무리가 서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접전을 벌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편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만드는 작업을 성경은 듣기 좋게 인을 친다고 표시합니다.(계7:4, 9:4)

마귀는 온 인류를 상대로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유무상통(有無相通)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는 일이 가로막힙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반대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신이 인간을 지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마귀의 지배권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 그 안에서 아무리 선하다, 의롭다 해도, 그것은 어둠의 지배하에서 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세계에서는 그 잘했다 못했다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빛의 세계에서는 빛의 지배를 받은 한계 안에서 잘했다, 못했다 하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선악에 대한 근본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어둠의 자식들입니다.(요8:44) 빛의 세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잘했다, 못했다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한 잘잘못을 따져서 뭐 합니까? 전부 지옥 불에 던져질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상대방의 세계에서 따지는 잘잘못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의 내정(內政)에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도 그렇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내정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미국대로 다스리는 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대로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인은 미국인대로,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각각 자기 나라 법에 의해 잘잘못을 따져 재판도 하고 감옥에도 넣습니다.

빛과 어둠의 세력도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빛의 세력은 빛의 세계에서 따지고, 어둠의 세력은 어둠의 세계에서 따집니다. 빛의 세계에서는 어둠의 앞잡이가 거짓 것이고, 어둠의 세계에서는 빛의 앞잡이가 거짓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지배할 때에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 의기양양할 것이고, 반대로 어둠이 지배할 때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활개 치게 됩니다. 지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배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초월한 신의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본래의 신의 존재로 바뀌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주님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은 가지 못합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갈 수 있습니다. 그 벗어나는 본격적인 작업을 우리가 주의 피 권세를 힘입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즉 주님은 뿔이 일곱이고, (계5:6) ‘짐승’은 뿔이 열 개로 (계13:1) 나와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열 뿔은 열 왕이 짐승에게 합세한 권세입니다. (계17:12) 그럼 누가 많습니까? 어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7과 10이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대답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이 한 때나마 하나님의 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열 개면 이쪽에서는 적어도 열한 개는 돼야 합니다. 즉 네 개가 더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디 상상이 가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짐승이 주님보다 강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짐승은 주님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19:20) 어떻게? 짐승은 마귀의 왕초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계13:4) 그래서 뿔 일곱 개를 가진 주님이 짐승에게 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지는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성도는 그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단7:27)고 쓰여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집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죽임을 당하리라.”(계11:5)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의 권세가 깨지면 누구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지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작전상 한동안 후퇴하는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까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한 때, 두 때, 반 때, 즉 1,260일 동안 성도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 받습니다.(계12:14) 즉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당시에 상대방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면 힘을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졌으니까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힘을 기른 다음에 쳐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짐승의 권세가 언제나 열인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계13:5)고 했습니다. 즉 한 때, 두 때, 반 때, 곧 1,260일 동안만 그런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짐승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계13:7)

그러나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주님과 광야에서 양육 받은 14만 4천이 짐승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계시록은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계17:4) 여기 ‘저희’는 짐승 및 짐승과 합세한 열 왕



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양육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양육 받기에 도망쳐 온 성도가 상대방을 거꾸로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것은 일곱 우리가 발한 내용으로(계10:4) 이 일곱 우리가 발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계10:7)

앞에서도 말했지만, 짐승이 열 뿔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것처럼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 왕이 “일시 동안”(계17:12) 합세한 한 때, 두 때, 반 때만 강합니다. 이 열 뿔은 짐승의 권세가 아니라 용이 한시적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계13:8)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해서 결코 영원히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술상의 후퇴입니다. 나중에 짐승은 거꾸로 역습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고 말했습니다.(단12:7) 세상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 전 6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을 읽었지만, 2,600년 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의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나 오늘부터라도 나가 알아보십시오.

## Chapter 28.

#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신의 움직임을 잘 모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기를 가까이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온 인류는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전파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불리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위기가 닥치면 저절로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물론 중동 지방에서는 알라신을 찾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찾을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어떤 큰 힘에 직접, 간접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최초로 서로 대적하는 신들이 인간을 사이에 두고 인간을 각각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싸움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첫째 단계는 인간의 육체를 빼앗으

려 하고, 둘째 단계는 인간의 혼을, 그리고 셋째 단계는 인간의 영을 서로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3단계의 전쟁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말도 첫머리에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소나마 귀가 열려 영적으로 깊은 단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빛과 어둠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논해 왔지만, 깊이 있게 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빛이 제일이다,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양쪽을 잘 알아야 빛과 어둠의 싸움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빛과 아울러 어둠이 지닌 강력한 힘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성령과 악령을 상징합니다. 전자는 빛을 주관하고 후자는 어둠을 주관합니다. 이 양자는 서로 자기 환경 속에서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 빛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에게 속한 영들은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영 자체가 자연히 상대방을 싫어하게 됩니다. 즉 빛에 속한 영은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에 속한 영은 빛을 싫어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빛과 어둠은 서로 섞이려고 해도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영의 세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방 사도로 워낙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상 중에 셋째 하늘, 곧 하늘나라에 불러올려 그 광경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고후12:1-2)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어마어마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모르고, 나귀새끼나 뚝 단배를 타고 다니던 당시에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학자라야 지식이 오늘의 중학생만 못합니다. 바울도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셋째 하늘의 광경은 너무나 불가사의하게 비쳐서 당시의 우매한 사람들에게 설명할 처지가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4년 후에야 남의 말 하듯이 언급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는 또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고전2:7) 그가 만세 전이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영의 문제를 어느 정도 깊이 알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세 전’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이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본 칼뱅 같은 신학자는 절대 예정설을 주장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도 그것은 가로막는 세력에 의해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예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구원받고 못 받는가를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귀를 멸망시킬 비책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바라보니 그가 외롭고 적적해 보였습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하와입니다.

기독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왔으나,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가 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꺾뎀기 신세로 곱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만 많을 뿐, 하나님께 별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필요로 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이들만 상대하기 위해 지으셨다면, 마귀가 구태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훼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맞서는 악령을 대적하기 위한 모종의 대책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사 43:7)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한 급선무는 마귀를 완전히 소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쪽에서는 적극 가로막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면 가로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은 것이 자기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올 경우에는 가만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

님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을 하도록 만든 원흉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무기가 선악과입니다. 에덴동산의 한복판에 선악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일반교회에서 펄쩍 뛰면서 이단이다, 삼단이다 하는데, 내 말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고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해 왔습니다. 나는 인간의 정체를 조상 아담, 하와와 관련시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본래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령한 인간이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창3:17) 세상의 국면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를 방치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비롯하여 저주받은 만유를 회복하셔야 합니다.(행3:21) 이 작업이 하나님의 역사(役事)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인간은 마귀가 틈타면 더러워지게 마련입니다. 더럽히는 것은 악령이고 정결케 하는 것은 성령인데, 더럽히는 세력이 강하냐, 정결케 하는 세력이 강하냐에 따라 인간이 정결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정결해지고 싶어서 정결해지고, 더러워지고 싶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신의 조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사이에 두고 움직이는 성령과 악령의 싸움에서 정결해지느냐, 더러워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은

빛을 발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영광의 빛을 꺼버린 것이 선악과라는 열매였습니다. 마귀가 빛을 빼앗으면 어둠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야 같이하실 수 있고, 마귀는 어둠에 거하는 자라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신끼리의 규례, 즉 ‘룰’입니다. 그리하여 신은 서로 이 ‘룰’을 지킵니다. 마치 지상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법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속하려면 빛을 소유해야 하고, 빛을 소유하지 못하면 싫어도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양자 택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 왔습니다. 많은 애국자와 순국선열들은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위에서 왕이 항복을 하면 할 수 없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는 지배를 안 받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지배를 받기 싫으면 상대방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힘을 길러 상대방의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아담,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침투해 들어가는 마귀의 세력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짓지 않으신 것만도 못합니다. 마귀를 치기 위해 지으신 인간이 마귀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영수가 인격이 훌륭하고 똑똑해서 악령이 침투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악령이 침투하지 못하게 불담으로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를 통하여 내 것이 나가고, 너를 통하여 악령이 무너져 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생수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곧 마귀의 밥이 될 존재라면 불안하여 사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아무리 따져 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래라저래라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해 온 것입니다.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했으므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마7:21)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는 사람은 오직 순종이 있을 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워 이러쿵저러쿵 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끼리,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한들, 모두가 죄로 물든 새까만 숫덩이들입니다. 이런 숫덩이를 눈보다 더 희게 씻기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적을 무찌르는 군병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 Chapter 29.

# 왜 하나님의 역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가?



나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단을 지켜 오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주께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해 오는 가운데, 근자에 이르러 하나님의 근황을 조금씩 비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찍이 전혀 들어 보지 못한 이야기이므로, 전하는 사람도 조심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얼른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때가 되면 서서히 밝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는 그 윤곽이나마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전에 마귀가 하나님의 강적이며, 이를 무찌르기 위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더 덧붙여 말하면, 이 강적을 쳐부술 수 있는 당신의 군병, 14만 4천을 배출시키기 위해 아담, 하와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성서는 이에 대해 우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

고 표시하고 있습니다.(사43:7)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사코 가로막는 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인간을 사이에 두고 언제나 서로 자기편으로 삼으려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분간은 아마겟돈 전쟁(계 16:16)이 끝날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완전히 소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는 14만 4천의 하늘 군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군병을 배출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역사하시고, 마귀는 마귀대로 한사코 이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군병으로 만들려고 하시고, 마귀는 인간을 자기의 부하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싸움에서 마귀의 전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뜻대로 안 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담, 하와의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인간의 범죄가 어째서 하나님의 패배가 되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짓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뱀이 꾀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뱀을 통하여 아담, 하와에게 침투한 것

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경고하셨고, 마귀는 먹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 하나님 처럼 선악을 잘 분별하게 된다고 꾀였습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승리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니” (요일3:8)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의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남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월맹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월맹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적수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상대로 싸울 엄두도 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맹은 미국을 이겼습니다. 소련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배후에서 월맹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월맹에게 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인간을 사이에 둔 이와 비슷한 역학 관계의 양상이 빚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섬기는 바알 신을 몰아내고 당신의 백성을 정착시켜 영광을 받기 위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자 술객들도 마귀를 힘입어 곧 모방했으나, 끝내 역부족으로 모방하지 못해 드디어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잠자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류할 때, 이스라

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게 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승리가 마귀에게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이, “상대가 우리보다 세다.”고 하여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자, 하나님께서 정탐 기간인 40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이라는 유랑 기간을 설정하신 것입니다.(민14:33)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잡으셨겠습니까? 설사 당신의 백성이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국한되는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단시일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호랑이도 새끼를 훈련시킬 때 새끼가 개울을 건너기 싫어 머뭇거리면, 목덜미를 물어서라도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 배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누가 지혜가 있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일을 맡긴 종이라 불가불 성경의 깊은 내막을 알려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이는 데 유리하게끔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이 듣기 좋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 내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성경 말씀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마귀

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화평도 복락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큰 강적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초비상 수단을 취하셨겠습니까? 주의 피권세로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하늘 군병을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길러 달라고 이긴자 감람나무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우선 체계가 섰는가를 눈여겨보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여 만사형통하는 줄로만 알고 따르는 일반교회의 그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것은 마귀의 집중 공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주님의 피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계17:15)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씩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모인 얼마 안 되는 양떼들만 듣고 알기에는 참으로 아까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신도들이 너나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전 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한다면 귀 밖으로 흘려보내도 되겠지만, 사실이 그렇게 때문에 귀담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님을 위해 힘이 되어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 다분히 역설적(逆說的)으로 들려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를 치리해 오신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을 때, 그 깊은 의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몰랐고, 그 후의 다른 선지자도 올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뤄 나가시는지 깊은 동기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즉 유일신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데 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최대의 적수가 되어 있는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의 세력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윤곽이나마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주님 이후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훼방하는 상대의 존재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마귀와 대결하셨던 것입니

다.(마4:1 이하 참조) 이 대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엄청난 힘이 이 지구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어렵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5)라고 말하고, 주님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10:18)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행4:27)고 당부하고,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벧전5:8)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일방통행의 신앙에서, 큰 적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 밑에서 경리를 맡아 수제자 못지않은 중요한 직책을 담당했던 가롯 유다가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파렴치범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귀의 농간이었습니다.(요6:70)

성경 66권 중에서 마귀의 궤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은 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마귀와 전쟁을 해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당시의 신도들에게 편지로 써 보낸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록이 세상에 알려진 지 2,000년 가까이 지나갔지만, 일반 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그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다 되

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하나님께 힘이 되어 드리는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거꾸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동안 내게서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조금은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하늘 군병의 수입입니다. 이 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수의 내용은 고사하고, 그 수에 대해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모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는데,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는 책임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긴자의 위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탁할 일이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언약이란 일종의 계약이며, 계약상 이런 상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구상에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브라함은 지구상에서 전 인류를 대표하게 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방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 (창17:4-6) 여러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초의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지방의 족장으로, 하란에서 유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람아!”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 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가르침을 받고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심마니가 산속에 들어가 산삼을 켤 때, 목욕재계하고 산신령을 연신 부르면서 고사를 지냅니다. 산에 신령한 신이 있다고 해서 산

신령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꿈에 한 백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내가 산신령인데 아무 골짜기 바윗돌 옆에 산삼이 있느니라!” 하고 말했다면, 심마니는 그 백발노인을 산신령으로 알게 됩니다.

무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무당이 될래.” 하고 무당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자코 있는데 뭐가 자꾸 와서 덤빕니다. 이상해서 뿌리치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그 신이 덮쳐서 앓아눕게 됩니다. 이것을 신접했다고 합니다. 신이 그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그 신의 조종을 받아 신비적인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다만 그 신이 다를 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네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어 내 이름을 찬양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 이 언약을 말로 하지 말고 피로 맺자” (창17:7-10)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리하여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언약을 하시는가? 수백 년 후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3:6) 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대로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 하와를 마귀에게 빼앗겼지만, 그들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하며, 따라서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창6:7) 당시에 의로운 노아와 그 후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다른 인간들을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시는 일이고, 다시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백 번 떠들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모르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상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 은혜를 주시고, 이래라저래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당신의 백성을 먹여 살렸으나, 그들은 불평

이 많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는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에게 “내가 수백여 년을 길렀는데, 이 백성 가리고는 안 되겠으니 다 쓸어버리고, 네 자손으로 내 백성을 삼아 다시 역사를 시작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겁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눈 밖에 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영도자인 모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실수도 범했습니다.(민27:14)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대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모세에게 하신 당부를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의 씨를 완전히 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인정사정을 보아 하나님의 당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깨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보시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일을 하지 않고 너의 마음대로 했으니,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가나안 민족들이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다.”(삿2:22 참조) 즉 하나님이 보복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보복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은 지구가 존속되는 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에게 “이제 내가 그 저주를 풀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별 문제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좌절되었다고 해서 역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종을 세워 역사하셨습니다. 그 종이 이른바 사사(士師)입니다. 큰 종을 세워 봤자 별 볼 일 없으므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작은 종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수백 년을 지내시며 선지자도 세우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길 예비자를 세운다는 예언을 하게 하시고,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는 공백기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다음, 2,000년 가까이 지나서 이 땅에서 이긴자, 두 감람나무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선 역사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신 여호와와의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오죽하면 아주 끌어버리려고 하셨겠습니까?

근래도 많은 적든 그 역사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 주의 종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라도 된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는 큰 이득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근원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래의 보수적인 신앙 운동으로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에 몇 부제씩 예배를 보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한국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저같이 존재 없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 다른 데서 하시면 될 터이니 말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아바림 산에 올라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리고성 너머로 광야가 펼쳐지고, 요단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고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sup>(신3:26)</sup> 이것으로 모세는 끝장이 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조상 요셉이 부탁한 유언에 따라 그 해골을 갖고 나왔습니다.<sup>(창50:25, 출13:19)</sup> 그런 모세가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다니, 참으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일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이하고 사랑하신 종이라도 당신에게 쓸모가 없게 되면 이렇게 버리시는 것입니다. 앞선 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얼마나 많이 줬느냐? 그런데 너는 내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래서 네가 인도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잖느냐? 너도 못 들어간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고생한 대가는 받게 되겠지만, 결코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 받을 만한 종은 못됩니다. 나 같은 것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밝히려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전하신 것이 구약의 역사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도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고, 이를 가로막는 세력도 같습니다. 앞선 역사는 무너지고 뒤를 수보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한적한 곳에 성전을 마련하고 부속 건물이 잇따라 세워져,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건재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시고 이것저것 지시하시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